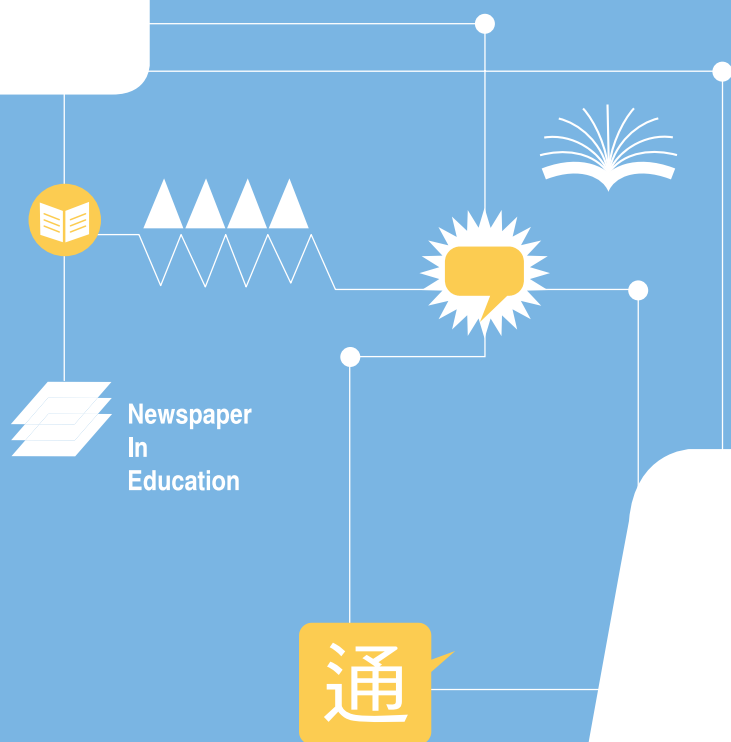


NIE 수업이 학업성취도 향상에 미치는 효과

-의사소통 능력을 중심으로-



서태열 · 구정화

NIE수업이 학업성취도 향 상 에 미치는효과

NIE 수업이 학업성취도 향상에 미치는 효과

연구책임자 / 서태열(고려대학교 교수)

공동연구원 / 구정화(경인교육대학교 교수)

연구보조원 / 최수미(고려대학교 석사 과정)

이승아(고려대학교 석사 과정)

조경철(고려대학교 석사 과정)

연구진행 / 이효정(한국신문협회 NIE 담당)

발행인 / 장대환

발행일 / 2009년 12월 7일 초판 제1쇄 발행

한국신문협회

100-750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 13층

Tel (02) 733-2251~2

Fax (02) 720-3291

www.presskorea.or.kr

디자인 · 편집 · 제작 / 에이스디자인

Tel (02) 2277-3241

Fax (02) 2277-2527

〈비매품〉

NIE수업이
학업성취도
향 상 에
미치는효과

C O N T E N T S

제 1 장 • 서론

- | | |
|----------------|----|
| 1. 연구목적 및 문제제기 | 12 |
| 2. 연구내용 및 방법 | 14 |

제 2 장 • 사회과 교육과 NIE

- | | |
|------------------------|----|
| 1. 사회과와 NIE | 18 |
| 1) 사회과 교육의 의미 | 18 |
| 2) NIE 교육의 의미 | 19 |
| 3) 사회과 교육과 NIE의 적합성 | 21 |
| 2. 우리나라의 사회과 NIE 수업 실태 | 22 |

제 3 장 • 의사소통 능력과 NIE

- | | |
|----------------------|----|
| 1. 의사소통 능력의 의미 | 26 |
| 2. 우리나라의 의사소통 기능의 실태 | 27 |
| 3. 의사소통 기능의 영역 | 30 |
| 1) 문해력 | 30 |
| 2) 구두표현력 | 31 |
| 3) 도해력 | 31 |
| 4) 사회적 기능 | 32 |
| 4. 의사소통 기능 향상과 NIE | 33 |

제 4 장 • 의사소통기능 향상을 위한 설문 조사 및 결과

1. 조사 대상	36
2. 조사 방법	38
1) 수업 설계	38
2) 설문 조사	45
3) 성취도 평가	46
3. 설문 결과 분석	47
1) 문해력	47
2) 구두표현력	53
3) 도해력	56
4) 사회적 기능	59
5) 설문 결과의 종합	62
4. 성취도 평가 결과 분석	65
1) 문항별 분석 결과	65
2) 종합적인 분석 결과	69

제 5 장 • 결론

1. 요약	72
2. 제언	73

참고문헌

부록

C O N T E N T S / 표 · 그 림

〈표Ⅰ-1〉 NIE 수업에 대한 설문문항	16
〈표Ⅳ-1〉 NIE 수업 표집 대상(학생)	36
〈표Ⅳ-2〉 성취도 평가 표집 대상	36
〈표Ⅳ-3〉 NIE 수업 표집 대상(교사)	37
〈표Ⅳ-4〉 7차 사회과 교육과정의 내용 요소	37
〈표Ⅳ-5〉 수업Ⅰ에서 나타나는 의사소통 기능의 유형	39
〈표Ⅳ-6〉 아마존 지역 개발 관련 수업 지도안	39
〈표Ⅳ-7〉 수업Ⅱ에서 나타나는 의사소통 기능의 유형	43
〈표Ⅳ-8〉 인종 및 문화 관련 수업 지도안	43
〈표Ⅳ-9〉 설문 영역의 구분	45
〈표Ⅳ-10〉 성취도 평가 문항별 평가 요소	46
〈표Ⅳ-11〉 문항 응답의 처리	47
〈표Ⅳ-12〉 글자를 바르게 읽고 의미를 찾아내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48
〈표Ⅳ-13〉 글을 능동적으로 읽으면서 의미를 구성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48
〈표Ⅳ-14〉 글을 해석하고 비판하고 다른 사람과 그 결과를 교환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49
〈표Ⅳ-15〉 글의 의미와 글자의 관계성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50
〈표Ⅳ-16〉 증거나 논증을 이용하는 논리적인 글쓰기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51
〈표Ⅳ-17〉 의미를 구성하고 다양한 상징적 매체를 사용하여 표현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51
〈표Ⅳ-18〉 느끼고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창조적인 글쓰기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52
〈표Ⅳ-19〉 정보의 종류에 따라 글과의 관계를 비판적으로 보고 쓴 글을 교환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53
〈표Ⅳ-20〉 자신의 느낌과 생각, 아이디어를 언어로 표현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54

〈표Ⅳ-21〉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는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하십니까?	54
〈표Ⅳ-22〉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말하는가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55
〈표Ⅳ-23〉 자신의 표현을 반성적으로 평가하고 수정하는 기회를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56
〈표Ⅳ-24〉 도표, 그래프, 사진 등과 지도의 정보를 파악하고 분석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57
〈표Ⅳ-25〉 주어진 정보를 다양한 형태의 도표와 지도 등으로 나타내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57
〈표Ⅳ-26〉 자료를 범주화하고 논리적으로 배열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까?	58
〈표Ⅳ-27〉 다양한 정보를 다양한 형태의 도표 등으로 효과적으로 발표하고 보여주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59
〈표Ⅳ-28〉 자료를 논리적으로 배열하고 효과적으로 발표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59
〈표Ⅳ-29〉 집단토의와 같은 활동에 참여하여 역할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60
〈표Ⅳ-30〉 질문을 제기하고 다른 관점으로 쟁점을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61
〈표Ⅳ-31〉 에세이나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길러주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62
〈표Ⅳ-32〉 설문 문항별 응답평균 및 표준편차	63
〈표Ⅳ-33〉 상위 5개의 설문 항목	64
〈표Ⅳ-34〉 하위 5개의 설문 항목	64
〈표Ⅳ-35〉 의사소통 능력의 유형별 응답평균 및 표준편차	65
〈표Ⅳ-36〉 실험반과 비실험반의 성취도 평가 결과	65
〈표Ⅳ-37〉 두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문항과 의사소통 능력 항목	68
〈표Ⅳ-38〉 두 집단에서 무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문항과 의사소통 능력 항목	68
〈표Ⅳ-39〉 두 집단의 성취도 전체 문항 분석결과	69
〈그림Ⅰ-1〉 미국신문협회의 NIE 효과 조사	13
〈그림Ⅲ-1〉 문서 문해 1단계(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성인의 비율	29

연구서를 내면서

한국신문협회는 2004년 NIE 한국위원회를 조직하고 매년 NIE에 대한 기초 조사연구를 수행하여 체계적인 NIE 연구 자료를 제공해왔습니다. 이들 조사연구 자료는 우리나라 NIE 활동을 발전시키고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을 이끌어내는 데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자부합니다.

그 결과 신문활용교육(NIE)은 학습자에게 학습 동기와 흥미를 부여하고 학업적 성취를 높이는 교육활동으로 교육현장에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 사회의 읽기문화를 더욱 성숙하게 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NIE 효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를 토대로 NIE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해외 선진국에 비해서는 부족한 면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NIE를 통한 학업적 성취에 대한 실용적 연구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번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학교교육에서 NIE가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시했습니다. 우선, 학생과 교사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NIE 수업 효과에 대한 인지상태를

파악하고, 실증적 검증을 위해 학업성취 평가도구도 만들어 실제 학업성취도를 측정해봤습니다.

NIE 수업은 읽고, 쓰고, 말하기 등을 포함한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시킬 것이라는 막연한 이해에서 벗어나 실제로 어떤 효과를 주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실험연구의 제한적 성격 때문에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수 없었던 것이 아쉽습니다.

한국신문협회는 NIE 수업효과에 관한 이번 연구를 계기로 일선 교육현장에서 NIE가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아울러 이 연구가 NIE 수업효과에 대한 실증적 연구의 시범 사례가 되고, 나아가 NIE 학습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구에 기여이 참여해준 연구진과 협조해준 선생님, 학생,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 12월
한국신문협회

제 1 장

•

서론

1. 연구목적 및 문제제기

미래 사회는 지식의 축적보다 정보 활용 능력이 중시되는 사회로서, 말이나 글로 쏟아지는 정보를 어떻게 유용하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시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전통적인 교육관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 교실 안보다는 밖에서 정보 접촉 빈도가 높기 때문에 학교 교육은 다양한 정보 현장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단순한 지식의 암기보다는 창의적 유연성, 문제 해결력, 비판적 사고력과 올바른 인성의 함양에 교육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이런 정보화 시대에 부합하기 위해 대안적 성격으로 등장한 것이 신문활용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신문활용교육(NIE)은 교수-학습 과정에서 신문을 활용하여 학습자에게 학습 동기 및 흥미를 부여하고 학업적 성취를 높이고자 하는 교육활동이다. NIE 수업이 학교수업에서 활용도가 높은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이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이 있었다. NIE는 매우 다양한 교육적 용도와 이용방법이 있는 것 또한 주지의 사실이다. 탐색 및 탐구활동, 공작활동, 동작표현활동, 읽고 쓰기 활동, 발표·토론활동, 감상 및 평가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신문기사를 이용하거나, 신문 자체를 교육 자료로 삼거나, 교육과정에 맞추어 사용하거나, 학습지 또는 워크북을 이용하는 등 수업에서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다(최상희, 2009).

특히 NIE 수업은 학교의 교과수업과 관련시켜 볼 때 국어수업에서 내용을 정리하는데 유용하다. 사회과 수업의 경우 논쟁적 내용이나 사회적 이슈를 발췌하여 사용하기 유리하여 보통수업이나 심화수업 모두에서 활동도가 높으며, 토론이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과 수업에는 어디든지 활용할 수 있으며, 범교과 활동에 있어서도 적합하다고 평가된다(최상희, 2009).

지금까지 NIE와 관련하여 전국적인 실태조사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정문성·구정화·박미영, 2004; 정문성·구정화, 2005), 이들 연구결과를 보면 NIE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읽기능력, 정보 찾기능력, 논리력,

쓰기, 행동결정능력, 창의력, 수업태도 향상 등이 있었다.

그동안 추진된 NIE 연구들을 보면, 대규모 실태조사를 비롯하여 많은 연구들이 있었다. 이들 연구들에 있어서 NIE에 대한 인식이나 특정한 수업에서의 유용성, 당위성, 필요성에 대한 연구 그리고 NIE 수업을 이용한 교수설계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실제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실험연구나 실증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다음의 미국신문협회 재단의 연구는 보다 구체적인 실증연구의 예를 보여준다.

〈그림 1-1〉 미국신문협회의 NIE 효과 조사

※ 미국신문협회재단 조사 :

- 조 사 명 : 고등학교 저널리즘 경험과 학업성취도 사이의 상관관계에 관한 조사
- 조사대상 : 2004~2008년 ACT 대학입학시험 응시생 31,175명
- 조사방법 : 전체 학생 그룹의 성적 데이터를 분석해 '저널리즘 학생'과 '비 저널리즘 학생'의 성적 결과를 비교 (ACT, 대학성적, 마지막 고등학교 평균 점수, 그리고 최종 고교 과정에서의 성적 등)
- 조사결과 : 저널리즘 활동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경험이 없는 학생들과 비교해 고등학교 전체 평균 점수뿐 아니라 ACT에서도 높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나타남.
저널리즘 활동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저널리즘 활동을 통해 비판적 사고력, 리더십, 자기 관리 능력 등도 함양했다고 응답함.

따라서 본 연구는 특히 NIE 수업의 활용도가 가장 많은 사회과를 대상으로 하는 NIE 수업의 실험적, 실증적 연구를 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신문을 활용한 수업이 읽고, 쓰고, 말하기 등을 포함하여 학생들의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므로, 실제로 의사소통 능력의 다양한 측면에서 어떤 인식과 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NIE 학습에 대한 막연하고 심정적인 이해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학업 성취 결과물을 제시함으로써 학교 현장에서 NIE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실제로 미국, 일본 등지에서는 이미 NIE 효과조사가 활발히 추진되어 NIE가 학업성취도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를 얻고 있다. 이 연구는 논란이 있을 수도 있지만 NIE 수업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시도를 하고자 한다. 이 연구가 NIE 수업의 실제적 운용방안과 함께 NIE의 교육적 효과와 학업성취 효과, 나아가 의사소통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조사는 NIE 수업을 실시하였을 때 의사소통 능력이 발달한다는 가설을 세우고 실제 교실 현장에서 NIE 수업을 적용해봄으로써 의사소통 능력 발달의 여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실증 연구를 위해서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NIE 수업 효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수업 지도안으로 실제로 수업한 후 성취도 평가를 통해 실험집단과 비 실험집단의 차이를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실험 대상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권의 학생 506명으로 교사는 6명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쓰이는 의사소통 능력은 크게 문해력과 구두표현력, 도해력, 사회적 기능으로 구분하기로 하였으며 의사소통 능력의 영역별 세부 항목들을 다음과 같은 논리로 분류하였다.

문해력(Literacy, 또는 문식력)은 기본적으로 문자를 이용하여 쓰고, 읽고, 말하는 기능을 통틀어 사용할 수도 있는 용어이지만 여기에서는 문자를 이용하는 읽고 쓰기에 국한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이러한 읽기와 쓰기에서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므로 지적 기능의 측면을 중심으로 문해력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이는 읽기와 쓰기의 발달과정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읽기와 쓰기 그 자체보다도 국어와 같은 언어교과가 아닌 다른 교과에서 일어나는 읽기와 쓰기를 기본적인 것에서 보다 고등사고 기능으로 구분하여 제시한 것이다.

〈읽기〉

L-1 글자를 바르게 읽고 의미를 찾아내기

L-2 글을 능동적으로 읽으면서 의미를 구성하기

L-3 글을 해석하고 비판하고 다른 사람과 그 결과를 교환하기

〈쓰기〉

L-4 쓰기의 체계를 알고, 의미와 글자의 관계성을 파악하기

L-5 증거나 논증을 이용하여 논리적인 글쓰기(설명적 글쓰기)

L-6 의미를 구성하고 다양한 상징적 매체를 사용하여 표현하기(표현적 글쓰기)

L-7 느끼고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창조적으로 글쓰기(상상적 글쓰기)

L-8 정보의 종류에 따라 글과의 관계를 비판적으로 보고 쓴 글을 교환하기(비판적 글쓰기)

구두표현력은 말하기에 중심을 두고서 주로 언어적 표현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실제로 Oracy는 언어가 아니라도 입을 통하여 의사소통하는 모든 능력을 뜻하나, 학교수업에서는 주로 언어를 통한 구두표현에 국한된다고 보았다.

- O-1 자신의 느낌과 생각, 아이디어를 언어로 표현하기
- O-2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야기하기
- O-3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말하는가를 파악하기
- O-4 자신의 표현을 반성적으로 평가하고 수정하기

도해력(Graphicacy)은 “언어나 숫자로 전달할 수 없는 정보를 기록하고 전달하는 의사소통”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는 언어나 숫자가 아닌 그림, 지도, 도표 등 다양한 도구들을 이용하여 의사소통하는 것을 말한다.

- G-1 도표(그래프, 다이어그램 등)와 지도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분석하기
- G-2 주어진 정보를 다양한 형태의 도표와 지도 등으로 나타내기
- G-3 자료를 범주화하고 논리적으로 배열하고 해석하기
- G-4 다양한 정보를 다양한 형태의 도표 등으로 효과적으로 발표하고 보여주기

한편 사회과 교과의 측면에서 보면, 의사소통 기능은 참여하기 등과 같은 사회적 기능(Social skills)과 함께 혼합되어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교과교육에서 의사소통 기능은 자료를 논리적으로 배열하기, 정보를 효과적으로 발표하기, 에세이나 보고서를 작성하기, 질문을 제기하고 질문지 만들기, 모둠토의에 참여하기,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둠활동을 계획하기, 다른 관점으로 이슈를 제기하기, 집단의 일원으로 역할을 하고 기여하기 등 매우 광범위한 것들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기능들 중에서 특히 사회과 수업에서 요구하는 민주시민이 가져야 할 시민성과 관련되는 기본적인 자질에 해당하는 것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S-1 자료를 논리적으로 배열하고 효과적으로 발표하기
- S-2 집단토의와 같은 모둠활동에 참여하여 역할을 하기
- S-3 질문을 제기하고 다른 관점으로 쟁점을 평가하기
- S-4 에세이나 보고서를 작성하기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하면 문해력의 8가지, 구두표현력의 4가지, 도해력의 4가지, 사회과 교과 특수적 의사소통 능력 4가지의 총 20개의 항목들을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는 요소들로 설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시행된 설문조사는 이들 의사소통 능력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NIE 수업이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평가하도록 한다. 설문조사의 항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1〉 NIE 수업에 대한 설문문항

번호	문항 내용
①	이 수업은 글자를 바르게 읽고 의미를 찾아내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②	글을 능동적으로 읽으면서 의미를 구성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③	글을 해석하고 비판하고 다른 사람과 그 결과를 교환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④	글의 의미와 글자의 관계성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⑤	증거나 논증을 이용하는 논리적인 글쓰기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⑥	이 수업은 의미를 구성하고 다양한 상징적 매체를 사용하여 표현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⑦	느끼고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창조적인 글쓰기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⑧	이 수업을 듣고 정보의 종류에 따라 글과의 관계를 비판적으로 보고 쓴 글을 교환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⑨	이 수업이 자신의 느낌과 생각, 아이디어를 언어로 표현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⑩	이 수업에서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는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⑪	이 수업은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말하는가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⑫	이 수업이 자신의 표현을 반성적으로 평가하고 수정하는 기회를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⑬	이 수업이 도표, 그래프, 사진 등과 지도의 정보를 파악하고 분석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⑭	이 수업이 주어진 정보를 다양한 형태의 도표와 지도 등으로 나타내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⑮	이 수업이 자료를 범주화하고 논리적으로 배열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까?
⑯	이 수업은 다양한 정보를 다양한 형태의 도표 등으로 효과적으로 발표하고 보여주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⑰	이 수업은 자료를 논리적으로 배열하고 효과적으로 발표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⑱	이 수업이 집단토의와 같은 활동에 참여하여 역할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⑲	이 수업은 질문을 제기하고 다른 관점으로 쟁점을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⑳	이 수업은 에세이나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길러주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제 2 장

•

사회과 교육과 NIE

1. 사회과와 NIE

1) 사회과 교육의 의미

사회과의 본질적인 목적은 사회 인식을 바탕으로 한 바람직한 민주 시민의 양성이며, 이러한 사회과 교육의 본질적 목적 달성을 위한 관건은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에 있다고 본 Banks(1990)는 사회과 교육을 “지역 사회, 국가, 세계의 시민 생활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 가치관을 전수하는 초, 중등학교의 교육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Martorella(2001) 역시 “시민성 교육을 위하여 응용된 사회과학적 정보와 탐구 방식 및 개인, 집단, 사회의 이해를 위하여 관련된 정보와 탐구 방식”으로 정의하였다. 차경수(2000)는 사회과교육을 “사회생활에 관한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학생의 요구에 의하여 학습하고, 그러한 학습을 통해서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 기능, 가치 및 태도 등을 형성하여 국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교육하려는 학교의 교과목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현행 7차 교육과정에서는 사회과 교육을 사회 현상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사회 지식 습득과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능을 익히며, 민주 사회 구성원에게 요청되는 가치와 태도를 지님으로써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육성하는 교과라고 명시하고 있다. 사회과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민주 시민은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가지고 인권 존중, 관용과 타협의 정신, 사회 정의의 실현, 공동체 의식, 참여와 책임 의식 등의 민주적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고 나아가 개인적, 사회적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키움으로써 개인의 발전은 물론 국가, 사회, 인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사람이라 하겠다.

제7차 교육 과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사회과를 교육함으로써 학생들은 사회 현상에 관한 기초적 지식과 능력은 물론 지리, 역사 및 사회 과학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발견하고 탐구하는 능력을 익힌다. 또한 우리 사회의 특징과 세계의 여러 모습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며,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현대 사회의 문제를 창의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며, 공동생활에 스스로 참여하는 능력을 기르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개인의 발전은 물론 국가, 인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민주 시민의 자질을 기르는 게 목표이다.

이상의 사회과 교육에 대한 국내외의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요약해보자면, 사회과 교육은 내용의 측면에서 사회 현상과 그에 따른 문제를 중요한 학습 내용으로 삼고 있다. 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 기능,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여 궁극적으로 냉철한 판단력과 탐구 능력을 지닌 시민을 육성하는 교과라고 할 수 있다.

2) NIE 교육의 의미

① NIE의 정의 및 유형

NIE는 'Newspaper in education'의 앞글자를 딴 개념으로 우리말로 표현하면 신문활용교육이다. 신문을 교재 또는 보조교재로 사용하여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한 학습이다. 즉, 신문에 실린 정보를 활용해 교육 효과를 높임으로써 궁극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교양 있는 민주 시민을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국제신문발행인협회(FIFJ)는 NIE 교육을 “학교에 유용한 보조 교재와 교수 방법을 제공하는 수단이며, 동시에 미래의 신문 독자를 키우는 수단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공통적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권영부는 NIE 교육의 개념을 “신문사와 학교가 연계하여 비디오 세대인 학생들에게 문자 매체인 신문을 친숙하게 하고, 다양한 NIE 프로그램을 오프라인과 온라인 상태에서 실행하여 학습의 다양성과 올바른 가치관을 익히며, 정보화 사회에 필요한 창조력을 키우는 과정으로 신문이 교육과 만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말한다.”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또한 이성균은 신문활용교육이 전과 매체의 발달로 독서량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글 읽는 습관을 익히게 하여 문자에 대한 객관적, 비판적 사고력의 함양과 올바른 판단능력을 키우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NIE가 교실 현장에서 시행될 때에는 신문 기사 자체를 수업에 활용하는 경우, 혹은 신문을 수업의 보조 자료로써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 전자의 방법은 주로 일본에서 신문을 활용하는 방법으로써 신문의 기사를 활용하여 기사를 이해, 지식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 쓰인다. 서구에서 사용되는 방법과는 많은 차이가 있으며 자칫하면 따분하고 지루하여 학생들의 동기 유발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 또한 학습 쪽으로만 유도하는 경향이 있어서 저학년의 경우에는 이처럼 신문 기사 자체를 수업에서 다루는 것은 피해야 한다.

대부분의 NIE 수업 유형은 후자인 '신문 기사를 보조 자료로써 활용'하는 경우이다. 신문을 교육과정 요소를 지도하거나 보충 심화자료로 활용함으로써 학습 정보, 자료, 경험의 다양화를 시도하여 학생들에게 보다 창의적이고 주체적이며 다양한 학습 경험을 하게 하는 데 목표가 있다.

그 외에도 인쇄된 신문이 아닌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신문자료를 재구성한 후 수업에서 활용하는 경우도 종종 나타난다. 교육과정, 교과서의 내용을 분석하여 관련 신문 기사를 재구성하여 활용함으로써 사회 탐구력과 현상의 이해를 돕고 통합적 시각을 갖도록 한다. 신문에 제시된 사회 현상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는 그대로 학습 활동에 투입될 수 있으나, 교사가 반드시 재구성 과정을 거쳐 활용하여야 할 내용이 많이 있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어떤 방향으로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자료관을 가지고 있어야겠다.

② NIE의 학습효과

우리가 신문을 읽는 이유 중의 하나는 신문에 들어 있는 최신의 정보와 소식 때문이다. 국내외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 등을 포함하여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정보와 비평, 음악·미술 등의 예술 분야에 대한 각종 정보와 스포츠 소식 등 짧은 시간에 대량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점을 학교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면 그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학습이 될 것이며 교수-학습 자료로서의 가치 또한 높을 것이다.

구영희(1996)는 신문활용교육의 교육적 효과를 독서 기술 습득, 독서에 대한 흥미 증진, 현실에 대한 관심과 지식 증대 작문력과 발표력 향상, 토론을 통한 의견 교환 능력 향상 등 기존의 교과서로는 얻기 힘든 여러 가지 능력이 신문활용교육을 통하여 길러진다고 하였다. 권영부(2000)는 최신의 정보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생동감 있는 현실 감각과 흥미 유발, 어휘력의 향상, 다양한 과목에 대한 현대적인 교과서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습 자료로서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신문은 어디에서나 이용할 수 있으며 최소한의 비용이 드는 교재이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신문활용교육이란 '신문을 수업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하여 학습자 중심의 활동을 통해 학습 효과를 높이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지역 사회나 국가 그리고 세계의 최근 동향에 관해서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며, 사실을 제시하고 의견을 제공하며 결론을 내리고 해설을 하기 때문에 이상적인 교육 자료로서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김미경(1999)은 신문활용교육이 전 세계로 확산되어가고 있는 추세임을 밝히면서 우리 교육과 비슷한 점이 많은 미국의 펜터그래프(Pantagraph)지에서 정의한 신문활용교육의 가치를 네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 첫째, 민주 사회에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고 가늠할 수 있는 민주 시민 양성
- 둘째, 신문 읽기 능력을 키워줌으로써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 강화
- 셋째, 과목이나 주제 중심으로 작문, 역사, 수학, 시사 등 여러 분야의 내용들을 효과적이며 흥미롭게 가르쳐 주는 교수 도구 제공
- 넷째, 현대 생활에 필요한 정보나 오락 기능 등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개인적 성장 도모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교육적 정보의 공급은 교과서 중심의 학교 교육에 의해서만 축적될 수 없게 되어 전통적 학교 교육이 그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이 때문에 신문을 비롯한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교육의 전통적 개념을 확장할 필요가 있고, 교육계에서는 학생들의 독해 능력과 독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의 한 보조 수단으로 효과가 있음을 인정받아 그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추세이다(이계영, 1997). 여러 학자들이 다양하게

제시한 NIE 효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생생한 지식의 습득과 학습 동기 유발

신문은 학생들에게 앞으로 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때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준다. 신문에서 얻는 정보는 교과서의 정보와는 다르게 ‘지금, 여기’인 현실을 다루므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학생들이 지닌 선행 경험을 자극하여 유의미 있는 학습을 가능케 한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 발행된 신문은 하나의 ‘역사 교과서’이자 사회생활에 유용한 정보 매체로써 ‘평생 학습의 살아있는 교과서’이다.

- 정보 마인드 함양과 정보 활용 능력의 강화

유용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창출하여 처리하는 능력은 오늘날과 같은 정보화 시대에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우리 교육 역시 이런 ‘정보활용능력’을 기르는 정보화 교육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다. 신문을 활용하는 수업은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는 기사들 중에서 학습자가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기사 중 적합한 정보를 찾아내어 활용해 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 집단 학습의 효율성과 더불어 사는 삶의 자세 기르기

신문을 활용하면 집단 학습의 효과를 최대한 살릴 수 있다. 신문에 실리는 다양한 내용과 흥미 있는 형식을 활용함으로써 각자의 다양한 시각을 활발하게 나누게 되고 궁극적으로 사물과 현상, 사회, 인간 등에 대하여 폭 넓고 심층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된다.

3) 사회과 교육과 NIE의 적합성

이러한 사회과 교육의 목표와 정의는 신문을 수업에 활용하여 얻어질 수 있는 효과와 매우 일치한다. 서정우(2002)는 “신문은 사회의 축소판이고 역사의 기록이기 때문에 사회과 교육의 일환으로 광범위하게 교육에 활용될 수 있다.”라고 하였다. 또한 신문을 놓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언론의식과 민주 의식, 시민 의식 등이 크게 고양될 것이라고 하면서 NIE 수업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사회과의 내용은 이론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론을 설명하는 사례들도 최근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수업에서 학생들의 흥미를 유도하고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기에 부족하다. 반면 사회과 수업의 대상이 되는 사회는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구체적이고 시사적인 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 신문은 훌륭한 교육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신문을 이용하여 학습하는 것은 교과서로는 풀어낼 수 없는 새로운 사회 전반의 현상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며, 사회, 경제, 정치, 시사 등 여러 분야의 현상을 골고루 체험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문제점

파악과 문제제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생각의 폭을 넓혀감으로써 창의력을 계발하고 사회문제를 다양한 시각으로 받아들이며 사회 문제를 적극적으로 이해, 파악, 비판, 주장하도록 유도하면서 분석력, 논리력, 비판력을 키울 수 있다.

NIE 수업이 사회과 수업에서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다. 서울을 비롯한 다른 많은 지역에서 신문활용교육에 대해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선행연구를 보면 신문활용교육이 전통적인 수업에 비해 학생들의 호응도 면에서나 수업의 효과 면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우리나라의 사회과 NIE 수업 실태

1994년에 우리나라에 NIE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많은 양적 확산이 이루어졌다. 초·중·고 교사들의 90.2%가 NIE를 알고 있으며, 이 가운데 82.8%가 NIE를 경험하였다. 학문적으로도 NIE는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어서 2009년도 11월 현재 500여 편의 NIE 관련 학위논문이 발표되었다.

이런 경향은 사회과 교육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사회과 교육에서 NIE의 학습 효과를 보여주는 많은 연구들이 있다. (김항윤, 1997; 노회정, 2000; 방인숙, 2004; 이한진, 1997; 임선애, 2003; 최규학, 1998 등) 이 연구들은 수업의 만족도, 학습 동기 유발과 정보 활용 능력, 자기 주도적 학습 등의 면에서 NIE가 효과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한편, 정문성(2004)은 전국의 초·중등 교원 2,244명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NIE 실태를 조사하였다. 교사들은 NIE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으며, 특히 NIE를 적용해 본 교과와 NIE를 적용하기 가장 좋은 교과로 사회과를 꼽았다. 교사의 60.3%가 NIE를 적용한 경험을 갖고 있었으며, NIE의 지속적인 활용 여부를 묻는 질문에 '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6%로 나타났다. 그러나 56% 중 NIE의 지속적인 활용 여부를 묻는 질문에 거의 안 하거나 가끔 한다는 응답과 25차시마다 한다는 응답을 합한 비율이 49.8%로 나타나 실제 수업에서 NIE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상당수의 교사가 NIE를 인지하고 NIE 활용 의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업 현장에서는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다.

중앙일보(2002년 11월 12일 자)의 '신문활용교육 인지도·활용 현황' 조사 결과 또한 NIE 수업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조사에 참여한 총 457명(초·중등 각 153명, 고등 151명)을 대상으로 '신문활용교육 인지도'에 대해 14개의 항목에 걸쳐 전화로 물어본 결과, 교사의 경우 90.2%(30만 7천여 명)가 신문

활용교육을 알고 있었고, 이 가운데 82.8%는 교과목에 관계없이 신문을 교육에 활용하였다. 사회과 교사의 NIE 교육 활용도에 관한 연구 자료는 없지만,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NIE 실태조사에 의하면 학교에서 NIE 교육을 가장 많이 하는 교과를 묻는 물음에 학생들은 사회(60.1%), 국어(16.3%), 미술(9.3%), 도덕(8.0%) 순으로 응답하고 있다. 이런 결과는 학교 현장에서 사회과 교수-학습 방법으로 NIE 수업이 활발하게 실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 3 장

•

의사소통 능력과 NIE

1. 의사소통 능력의 의미

의사소통 능력이란 용어는 Dell Hymes(1967, 1972)의 조어인데 Chomsky(1965)의 언어 능력(Sprachliche Kompetenz)의 개념이 언어의 사회적, 기능적 규칙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여 너무 한정적이라는 확신에서 사용되었다. Hymes(1967)는 '언어적' 능력과 '의사소통' (Kommunikativ) 능력 간의 차이를 구별하였는데 이것은 언어 규칙과 형태에 관한 지식(Sprachliche Kompetenz)과 인간이 기능적, 상호 작용적으로 소통을 가능케 해주는 지식(Kommunikativ Kompetenz)의 구분을 의미한다. 의사소통 능력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해석할 수 있게 해주며 특정 상황 안에서 인간 상호 간에 뜻을 교환할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이다.

Noam Chomsky는 언어학 이론에서 인간의 언어 지식을 언어 능력(Competence)과 언어 수행(Performance)으로 구분하였다. 그가 말하는 언어 능력이란 완전한 동질적 언어 집단 내에서의 이상적인 화자-청자의 언어 지식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상적인 화자-청자란 언어를 실제 사용함에 있어서 나타날 수 있는 기억의 한계, 관심의 변화, 심적인 혼란, 착오와 같은 제조건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 순수한 상태를 가리킨다. 따라서 Chomsky의 언어 능력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실제로 언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언어 수행(Performance)과는 근본적으로 구분된다. 문법성을 중심으로 한 Chomsky의 언어 능력은 한때 설득력 있는 이론으로 인정을 받았으나 이는 언어 능력의 본질을 파헤치지 못하는 정의라고 사회 언어학자들에 의해 강력한 반발을 받았다.

Hymes는 Chomsky의 언어 능력은 문법 지식만을 뜻하며 이것은 언어 능력을 화자, 청자가 갖는 언어 사용의 전면적인 능력이라고 볼 때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Hymes는 의사소통 능력이란 화자가 문화적인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의사 전달하는 방법을 알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언어 사용에는 규칙이 있으며 이것 없이는 문법 지식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며 학습자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적어도 다음 네 가지 지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첫째, 언어의 문법성에 관한 지식으로, 일정한 지역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일정한 문법 규칙을 갖는 언어를 사용해야 하며 그 규칙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비문법적이 된다.

둘째, 인지 능력의 한계에 관한 지식으로, 지나친 구나 문장의 삽입은 인간의 두뇌로는 이해할 수 없다.

셋째, 일정한 발화의 사회적인 의미의 타당성에 관한 지식으로, 일정한 상황에서 사회적 환경과 관련된 올바른 언어 사용을 해야 한다.

넷째, 일정한 발화의 사용 가능성에 관한 지식으로, 어떤 문장이 문법적으로 옳고 이해할 수 있으며 사회적 타당성이 있다고 해도 실제로 그런 표현을 그 사회에서 사용하느냐 할 수 없느냐에 대한 지식도 의사소통 능력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Hymes는 문법적, 심리 언어적, 사회 문화적 지식을 종합한 것을 의사소통 능력으로 정의하였으며, 이 개념은 문법적인 요소만으로 언어 능력을 규정한 Chomsky의 언어 능력 개념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한편, Michael Canale과 Merrill Swain은 의사소통 능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다음은 그들이 정한 포괄적인 의사소통 능력의 네 가지 요소이다.

첫째, 문법적 능력으로써 이 능력은 형태소, 문장, 음성적인 특징을 익히고 이와 같은 요소를 단어나 문장으로 구성할 수 있는 것으로, Chomsky의 언어 능력과 같은 의미를 가졌다고 할 수 있으나 문법 규칙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 규칙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둘째, 사회 언어적 능력으로써 이 능력은 Hymes가 정의한 사회적 타당성과 같은 것으로, 사회적 상황에 따라 상대에 맞게 언어 표현을 하는 능력이다. 셋째, 담화 능력으로써 이 능력은 여러 문장이 연결된 글이나 말의 전체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과 일정한 상황에 맞게 말이나 글을 구성하는 능력이다. 넷째, 전략적 능력으로써 어떤 사회 환경에서든지 완전하고 타당하게 언어를 사용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족한 지식을 보완하는데 사용되는 반복, 추측, 바꾸어 말하기 같은 언어 및 몸짓, 표정 등과 같은 비 언어적 표현(Nonverbal communication)의 책략을 알고 있는 지식과 이 지식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와 같이 Canale과 Swain의 의사소통 능력의 개념은 Hymes의 개념과 유사하지만 전략적 능력을 포함시켰으며, 문장 이상의 전체 의미에서 요구하는 담화 규칙들과 비언어 표현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능력을 포함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사소통 능력이란 일정한 사회 문화적 환경에서 능률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하여 화자와 청자가 가져야 할 지식과 능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국어적 문법 지식이 아무리 탁월해도 스스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거나 올바른 의미 파악이 어렵다는 점에서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우리나라의 의사소통 기능의 실태

우리 국민의 의사소통 기능은 세계적인 수준에서 얼마나 발달한 정도일까? 최근 2000년 OECD에서 실시한 회원국별 문해력 조사 결과는 꽤나 충격적이다. 이 조사의 문해력¹⁾이란 개념은 성인의 능력(Competency)을 측정하는 것으로 인적 자원의 질을 판단하는 중요한 척도로 활용되고 있는데 국제성인문해조사(IALS) 결과

1) OECD 조사에서 쓰인 문해력과 본 연구에서 본 문해력은 의미의 차이가 있다. OECD 조사에서 쓰인 문해력의 의미는 본 연구에서 쓰인 그것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지닌다.

우리나라는 문서 문해 1단계 비율이 38%로 하위 5등을 차지하고 있다. 국제성인문해조사(IALS)에서 ‘문해’는 일상적인 활동, 가정, 일터,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문서화된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학력수준과 건주어 볼 때 중등교육 졸업 수준의 학력을 지닌 것을 나타낸다. 문해는 일반적으로 산문 문해(Prose literacy), 문서 문해(Document literacy), 수량 문해(Quantitative literacy)의 세 영역으로 나누고 각 영역의 문해력을 0~500점으로 점수화하여 수준에 따라 5단계로 평정된다. 여기서 3단계 이상이어야만 일상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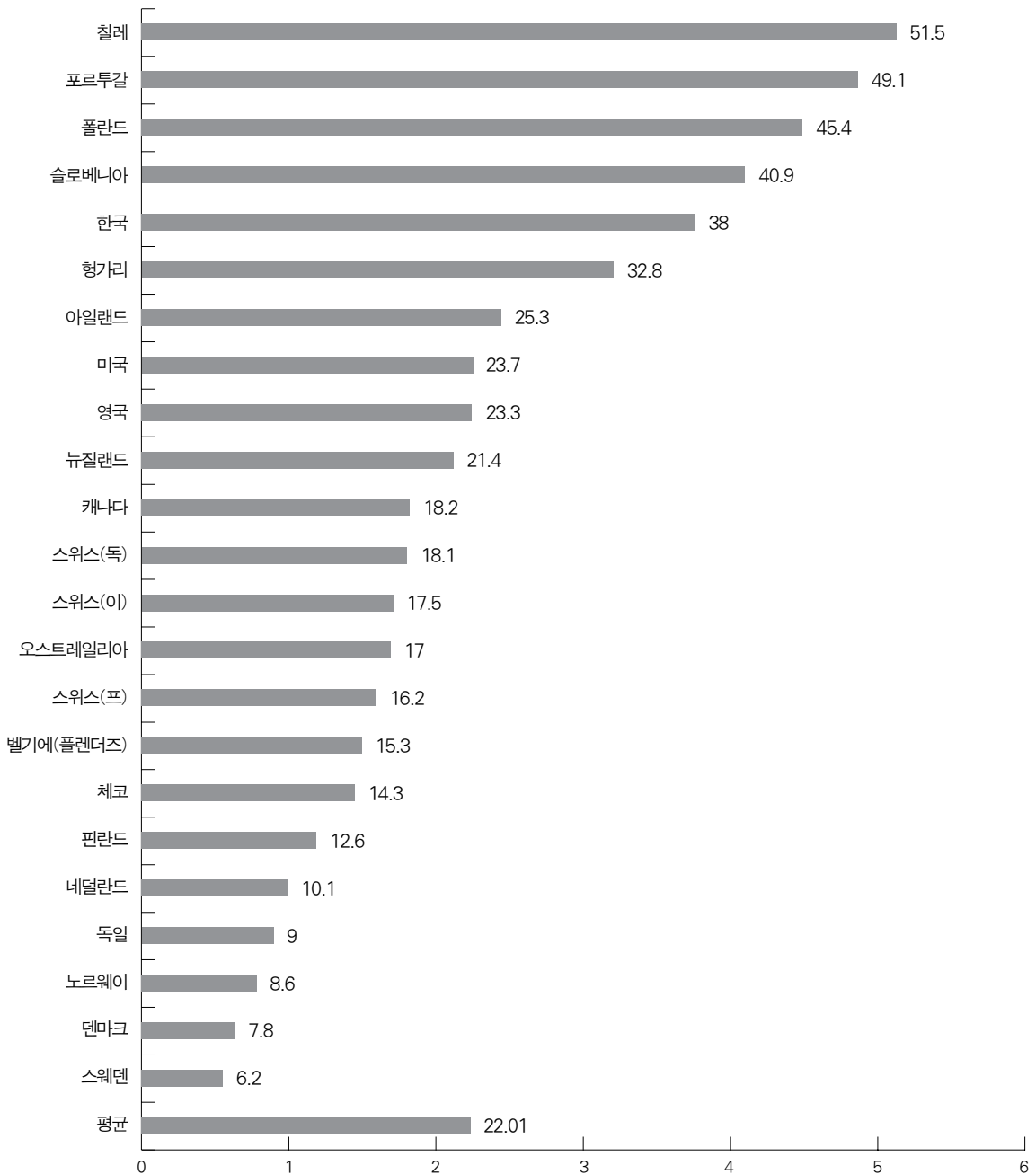
국제성인문해조사(IALS) 결과, 20개국 중 14개국의 성인 중 22% 이상이 5단계에서 1단계인 최저 수준의 문해 능력을 갖고 있었다. 이는 정보화 시대에 요구되는 적합하고 필요한 기술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각 국가의 많은 사람들이 낮은 수준의 문해 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문서 문해 최저 수준인 1단계 성인의 비율이 22%로 나타나고 있다. 덴마크, 핀란드,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6개국에서는 문해 수준이 1단계인 성인이 15% 미만으로 나타났으나, 가장 높은 수준의 문해 능력을 가진 것으로 조사된 스웨덴에서조차도 6.2%의 성인 집단이 일상생활에서 심각한 문해 능력의 부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낮은 문해 능력은 일부 소외계층에서만 아니라 모든 국가에 분포되어 있다. 즉 경제 선진 국가에서조차 많은 성인들이 낮은 문해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별로 전체 성인 인구의 1/4에서 3/4에 해당되는 성인이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수준인 3단계 문해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학력에 따른 문서 문해 점수를 비교한 결과, 중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 집단에서는 스웨덴이 280.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독일(276.1), 덴마크(266.9), 네덜란드(262.6), 핀란드(257.3)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214.6점으로 헝가리(214.1점)와 비슷한 점수로 포르투갈(206.7), 폴란드(201.5), 미국(199.9), 칠레(196.5), 슬로베니아(189.5), 체코(166.3) 등의 국가보다 높아 중하위권을 보이고 있다. 고등학교 졸업 학력 집단의 경우에는 스웨덴이 308.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네덜란드, 체코 순이며 한국은 239.9점으로 최하위인 칠레(239.0점)와 비슷한 수준으로 전체적으로는 최하위권에 위치하였다. 대학 졸업 이상 학력집단에서는 역시 스웨덴이 331.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노르웨이, 핀란드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258.9점으로 칠레의 266.2점보다 낮아 조사된 전체 국가에서 최하위를 차지하였다. 한국의 경우는 여타 국가와 비교할 때 학력수준에 비하여 성취하는 문해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특히 대졸자의 경우 문해력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Ⅲ-1〉 문서 문해 1단계(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성인의 비율



자료 : OECD(2000), Literacy in the Information Age: Final Report of the International Adult Literacy Survey, 한국교육개발원(2001), 한국 성인의 문해 실태에 관한 OECD 국제비교조사연구 재정리.

3. 의사소통 기능의 영역

일반적으로 의사소통은 읽고, 듣고, 쓰고, 말하기로 여겨지지만 의사소통은 반드시 언어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언어를 통하지 않고서도 숫자를 통해서 의사소통하는 것, 언어나 상징, 숫자를 이용하지 않고 그림이나 도표, 지도 등을 통해서도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특정한 발성을 통해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것은 (구두)표현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이야기하기로 읽고 쓰는 것과 통합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읽고, 듣고, 쓰기와 구분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이 연구에서는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구두표현력(Oracy), 문해력(Literacy), 수리력(Numeracy), 도해력(Graphicacy)의 4개 영역으로 구분한다. 하지만, 수리력은 기본적으로 수학 교과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분야이므로 사회과와 관련되는 의사소통 능력을 구두표현력, 문해력, 도해력에 국한하여 이들 3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사회과에서 중요시되는 의사소통 능력인 사회기능도 함께 보고자 한다.

1) 문해력(Literacy)

이른바 읽고 쓰는 능력을 뜻하는 문해력은 학교에서의 읽기와 쓰기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발달한다. 하지만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은 개인적인 필요와 사회적인 필요로 개발되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문자가 사용되는 환경에서 성장하는 학습자들은 학교에 오기 전에 이미 글을 읽고 쓸 줄 안다. 학교에서는 학습자가 자연적으로 해왔던 읽고 쓰는 총체적 학습의 연장선상에서 기능적이고 실제적인 문해력을 발달시켜야 한다. 읽고 쓰는 능력은 전체에서 부분으로, 모호한 것에서 정확한 것으로, 세련되지 못한 것에서 세련된 것으로, 아주 구체적이면서 상황적 맥락이 분명한 것에서 보다 추상적인 것으로, 친숙한 것에서 친숙하지 않은 것으로 발달해간다.

쓰기(표현하기)와 읽기(이해하기)는 기능적이면서도 의미 있고 적절한 언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발달하며 표현과 이해를 위해 쓰기와 읽기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되면, 읽기와 쓰기의 형식을 알아야겠다는 동기가 유발되고 그 결과 읽기와 쓰기의 형식에 대한 능력이 개발된다. 글을 읽고 쓰는 것을 가르치는 교수법과 학습 방법은 일대일로 대응하는 관계가 아니다. 교사는 동기를 유발하고, 언어 환경을 마련하고, 발달을 관찰하고, 적절한 교재를 제공하고, 학습자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글을 읽고 쓰는 사건과 학습 기회를 계획해야 한다. 학습자는 교사가 계획해서 제공하는 풍부한 언어 환경에서 지식과 지식의 구조 및 학습 전략을 구성하는 주체가 된다.

교사는 학습자의 읽기와 쓰기 전략이 발달하는 것을 관찰하면서 지원하고, 학습자는 의미의 소통에 초점을

맞춘다. 교사가 학습자의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을 발달시킨다는 것은 이중 계획을 수행해야 함을 의미한다. 학생들은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고 의사소통을 원하기 때문에 읽고 쓰는 것을 배운다.

2) 구두표현력(Oracy)

의사소통을 가능케 하는 기능은 다양하지만 말로써 전달하는 구두표현력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의사소통 전략이다. 누구에게나 타자와의 의사소통 능력은 중요한 문제이다. 현대 사회의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이 획득한 지식을 명확하게 주장하고 단지 전달하는 것만이 아니라 타자와의 상호작용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며, 교섭하는 과정에서 원활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러한 능력은 말하기-듣기 교육의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지식의 형성과 그 학습에 관여하기에 더욱 중요하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공교육 현장에서 가장 부진한 활동은 말하기 영역이다. 학생들은 하루 수업 중 상당한 시간을 수동적인 상태에서 침묵을 지키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듣기 활동이 잘 되고 있는 것도 아니다. 교사 위주의 일방적인 수업은 학생들을 지치게 하고 수업에 대한 열의를 떨어뜨리게 한다.

말하기, 듣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준비된 신문 자료를 충분히 읽어오도록 그 필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그리고 실제 수업 상황에서 발표자는 최소한 '누구에게 말할 것인가' 대상을 선정하고 말하기 내용이 있어야 하고, 발화에 필요한 여러 가지 상황이 고려되어야 한다.

3) 도해력(Graphicacy)

도해력이라는 개념은 Balchin과 Coleman(1965)에 의해 최초로 언급되었다. 이후 Balchin(1972)이 영국 지리교육학회 창립 연설에서 도해력을 '언어나 숫자로 전달할 수 없는 공간적 정보와 아이디어를 기록하고 전달하는 하나의 의사소통'이라고 정의한 후 이는 지리교육에서 보편적으로 수용되었다.

Boardman(1983)은 도해력을 문해력(Literacy), 구두표현력(Oracy), 수리력(Numeracy) 등 의사소통의 형태 중 가장 지리적인 것으로 보고, 이 네 가지의 의사소통 기능은 어느 것 하나가 더 우월하거나 열등하지 않고 특정한 목적에 보다 적절하거나 덜 적절할 뿐이라고 하였다. 또한 각각은 매우 간단한 것에서부터 복잡한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상호보완적이어서 적절히 통합될 때 최고 수준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고 역설하였다. Balchin(1985)은 도해력(Graphicacy)을 '언어나 수리적 표현만으로는 적절하게 전달될 수 없는 공간정보에 대한 의사소통'으로 정의하였다. 공간정보는 몸짓, 언술, 수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사소통될 수 있지만 지도, 사진, 그림, 다이어그램, 만화, 스케치, 포스터, 그래프 등 상징체계를 통해 전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도해력은 공간정보와 아이디어를 담고 있는 지도, 사진, 그래프와 같은 이미지 자료로부터 정보를 추출해

관찰과 숙고의 과정을 거쳐 지리정보를 분석, 종합, 평가한 후 일반화를 도출하고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즉, 지리도해력은 공간관계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상징적 언어를 사용하는 복잡한 형태의 의사소통 능력이다. Catling(1995), Molyneux 와 Tolley(1987)는 지리 도해력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지리정보를 이미지 자료 형태로 전환하는 인코딩(Encoding) 과정과 그 내용 및 의미를 읽는 활동을 통해 정보를 디코딩(Decoding)하는 과정이 결합되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하였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는 아이콘 코드와 다양한 그래픽 정보가 끊임없이 유입되고 이에 대한 해석이 요구되기 때문에 도해력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현대 사회에서 요구되는 도해력은 그래픽 정보를 단순히 읽고 파악하는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이콘 코드와 그래픽으로 이미지화된 세계'를 읽는 수준으로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지도나 그래픽은 코드와 개념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대상으로 구문론적²⁾이라기보다는 의미론적이다.³⁾ 의미론적 맥락에서 도해력은 지도나 그래픽에 제시된 명칭이나 모양을 알아내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학습을 통해 습득되고 지식과 사고 수준에 따라 그 깊이가 다르게 나타난다.

4) 사회적 기능(Social skills)

추상적이고 논리적인 사고가 가능한 중학교 학생에게 단순히 신문을 소재로 하여 일방적인 교훈과 정보를 얻게 하는 수준의 의사소통 교육은 바람직하지 않다. 학생들은 관련된 문제를 스스로 탐구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신문을 활용하고 신문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탐구 활동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이르게 된다.

합리적인 의사 결정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학습자 스스로의 내용 구성 능력이나 의미 파악력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귀기울이고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는 능력 또한 매우 중요하다. 미국의 실용주의 교육학자 C.S.Peirce는 '탐구 공동체(Community of Inquiry)'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사용한 학자인데, '탐구 공동체(Community of Inquiry)'란 교과 수업에서 토론이나 토의 활동을 통해 합리적인 사고력과 민주시민의 기본

2) 아동이 의사소통 능력을 발달시킴에 있어서 구문론적인 발달은 통사론적 발달이라고도 불리고, 일련의 문법적 법칙들을 이해하고 구사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 어문기에 속하는 생후 약18개월이 되면 많은 아동들은 단어들을 연결하기 시작한다. 구문의 발달은 매우 빨라서 2.5~3세가 되면 복잡한 문장을 말하게 되는데 이 시기가1년 밖에 걸리지 않는다.

3) 의미론적 발달 또한 의사소통 능력 발달 중 하나의 범주에 속한다. 아동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의 수많은 대상과 현상들이 각기 독특한 낱말로 지칭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이들 낱말의 의미를 획득한다. 유사한 대상이나 현상을 지칭하는 낱말간의 미묘한 의미와 차이를 구분하는 능력도 획득하는데 이러한 발달이 의사소통 능력의 의미론적 발달이다.

태도를 기른다는 ‘탐구’의 개념과 공동체 활동을 통해 타인 존중과 협동심 등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는 ‘공동체’의 개념을 갖는다(정병남, 2001).

탐구 공동체에서는 다른 사람과의 협동적 활동이 조장되며, 그러한 활동을 통해 구성원들 간에 마음 깊이 연대감이 형성되게 된다. 이러한 탐구 공동체 활동은 교육적으로 가치가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학생들이 스스로 탐구 활동을 하기 때문에 관심과 흥미가 증가할 뿐 아니라 동시에 학습의 효과를 올릴 수 있다(권순덕, 2004; 임정애, 2003; 정병남, 2001). 따라서 신문을 활용하는 탐구 공동체의 교육 활동은 학생들로 하여금 사회에 대한 공동체 의식을 함양케 한다고 볼 수 있다.

4. 의사소통 기능 향상과 NIE

정보사회와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학습자들이 교사로부터 지식을 맹목적으로 전달받는 방법은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이른바 고감도 High Touch 시대에서는 학생들 스스로 듣고, 읽으며(이해), 그것을 말하고 쓰며(표현), 동료들과 자기 경험을 함께 말하여 자신의 생각을 구성하고 형성해나가는 체험을 통해 생동하는 교육현장이 필요하다.

학생들은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고 의사소통을 원하기 때문에 의사소통 기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즉 학습에 대한 외적인 보상보다는 학습자 내부에서 발현된 학습 동기가 의사소통 기능을 위한 수업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자발적인 동기는 개방적인 교실 문화에서만 나타나므로 학생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학습을 못했다고 벌을 주는 일은 없다.

인쇄 매체는 인쇄를 이용해 만들어진 집단적 의사소통의 자료로써 일반적으로 책이나 신문, 잡지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인쇄 매체 중에서 교육적 활용가치가 뛰어난 것으로 흔히 ‘살아있는 교과서’라 불리는 신문을 꼽는다. 그만큼 신문 활용에 대한 교육적 검증에는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신문의 높은 교육적 가치는 신문이 지닌 다양한 특성에서 비롯되는데 신문매체의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속보성을 가지고 있다. 즉, 빠른 정보를 알 수 있다. 둘째, 다른 매체보다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다. 셋째, 정보를 빨리 선별해낼 수 있다. 넷째, 현재뿐 아니라 과거의 기록도 자세히 알 수 있다. 다섯째, 다양한 사실과 견해를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으로 발간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신문의 특성을 충분히 살려서 교육에 활용함으로써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NIE의 취지라고 할 수 있다.

여타의 수업과는 구별되는 NIE 수업의 중요한 교육적 결과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사회성’을 길러줄 수 있다. 신문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자기의 문제로 생각하는 자세를 기르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세상에는 다양한 의견과 가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음으로써 보다 폭넓은 인간성을 지니게 된다.

셋째, 많은 사실과 의견 가운데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자기의 주장을 당당하게 펼칠 수 있는 판단 능력을 훈련하게 된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넷째, 정보의 홍수 속에서 필요한 것을 취사선택하고 진실을 가려낼 수 있는 정보 선별 능력도 높이게 된다.

제 4 장



의사소통 기능 향상을 위한 설문 조사 및 결과

1. 조사 대상

본 조사는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중학교와 비 서울지역 즉 경기도와 인천 지역의 중학교를 선정하여 1학년 중에서 총 7반, 225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11월 초에 NIE 수업을 실시하였다. 수업을 실시한 표집 대상은 다음 표와 같다.

〈표Ⅳ-1〉 NIE 수업 표집 대상(학생)

지역	학교	학생 수	합계
서울	번동중학교	69	225
서울	당산서중학교	35	
서울	공릉중학교	36	
경기(비 서울)	일산중학교	39	
인천(비 서울)	서곶중학교	38	
인천(비 서울)	관교여자중학교	38	

수업 대상을 표집할 때 서울 지역 소재 중학교와 비 서울지역 소재 중학교를 구분하여 선정하였고, 이는 학생들이 거주하는 지역과 NIE 수업과의 상관관계의 유무를 밝히기 위함이다. 표집 대상에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수업을 실시하는 6명의 지도 교사도 포함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NIE 수업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반과 비 실험반의 차이를 보기로 한다. 즉, NIE 수업을 실시한 반과 실시하지 않은 반을 대상으로 성취도 평가를 실시한다. NIE 수업을 받지 않고 평가에 참가하는 학생 집단의 표본은 다음과 같다.

〈표Ⅳ-2〉 성취도 평가 표집 대상

지역	학교	실험학생	비 실험학생	학생 수
서울	번동중학교	69	65	134
서울	당산서중학교	35	35	70
서울	공릉중학교	36	36	72
경기(비 서울)	일산중학교	39	34	73
인천(비 서울)	서곶중학교	38	40	78
인천(비 서울)	관교여자중학교	38	41	79
합계	506명			

본 연구에 참여하여 수업을 지도하고 수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교사 표본 대상은 다음과 같다.

〈표Ⅳ-3〉 NIE 수업 표집 대상(교사)

지역	학교	교사 수	합계
서울	번동중학교	1	6
서울	당산서중학교	1	
서울	공릉중학교	1	
경기(비 서울)	일산중학교	1	
인천(비 서울)	서곶중학교	1	
인천(비 서울)	관교여자중학교	1	

설계된 NIE 수업은 중학교 사회 ‘Ⅷ. 아메리카 및 오세아니아의 생활’ 중 2단원인 ‘자원이 풍부한 라틴 아메리카’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현행 7차 사회과 교육과정에 명시된 내용요소 중 2차시에 걸친 수업은 ‘역사·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유럽인의 진출로 인한 주민 생활의 변화를 조사한다. 인구와 도시 문제, 지역 개발 문제 등을 사례 연구를 통하여 파악한다.’에 해당한다.

〈표Ⅳ-4〉 7차 사회과 교육과정의 내용 요소

중단원	내용 요소
(2) 자원이 풍부한 라틴 아메리카	위치와 범위 및 자연환경의 특색을 파악한다.
	역사·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유럽인의 진출로 인한 주민 생활의 변화를 조사한다.
	농목업, 자원 분포와 공업의 특색을 파악한다.
	인구와 도시 문제, 지역 개발 문제 등을 사례 연구를 통하여 파악한다.
	(심화 과정) 원주민 문명의 사례를 들어 주요 특징과 성쇠 과정을 살펴본다.

2. 조사 방법

1) 수업 설계

○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수업 설계 I

본 연구에서 실시한 NIE 수업은 10월 말에서부터 11월 초까지 각 학교의 학교 진도 및 기타 상황에 맞추어 유연하게 진행되었다. 또한 교실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연구 조사를 실시할 시기의 진도에 최대한 맞추어 중학교 1학년 사회 'Ⅶ. 아메리카 및 오세아니아의 생활' 중 2단원인 '자원이 풍부한 라틴 아메리카'를 다루기로 하였다.

본 NIE 수업은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하여 설계된 것으로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이 최대한 활용되도록 수업을 구성하였다. 첫 번째 수업은 라틴 아메리카의 지역 개발과 관련하여 아마존 강 유역 개발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이 수업에서 나타나는 의사소통 기능을 수업 절차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도입

도입 부분에서는 아마존 강 유역의 개발에 대한 학습자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기 위하여 아마존이 점차 개발되고 있는 항공사진을 제시한다. 이때의 사진은 2000년, 2004년, 2008년의 아마존 모습을 담은 것으로 학생들은 시간순으로 세 장의 사진을 배열하여 아마존 강 유역의 개발 현황을 파악하고 의미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 (G-3) 이러한 활동은 사진과 같은 그래픽 정보를 파악하고 분석하며 해석하는 도해력을 길러준다. (G-1)

▶ 전개

수업의 전개 부분에 들어서면 우선 이번 차시에서 학습할 아마존 강 유역의 열대 우림 지역이 어디에 분포해 있는지를 파악한다. 이때 사회과 부도나 지리과 부도를 펼쳐놓고 분포 지역을 이해하게 된다. (G-1) 그런 후 학생들은 교사가 제시한 라틴 아메리카 백지도에 열대 우림 분포 지역을 표시해 본다. (G-2) 지도를 보고 아마존 열대 우림이 분포한 지역에 속한 국가를 발표하고 그곳의 기후가 어떠한 지에 대해서 열대 기후의 기후 그래프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진다. (G-4)

이번 수업의 주요한 목표인 아마존 강 유역 개발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서 학습한다. 학생들은 개발을 둘러싼 다양한 집단의 입장이 나타나는 신문 기사를 읽고 각 기사 중심 내용을 파악한다. (L-1) 각 신문 자료에서 나타난 의견과 일치된 주장을 하는 사회 집단을 짚지어 보며 읽는다. (L-2) 신문 자료의 중요한 내용을 글로 써보

고(L-4), 학생들은 읽은 신문 자료의 정보를 토대로 (L-3) 아마존 강 유역 개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세운 후 발표한다. (O-1) 이때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하고 의미 있는 근거를 든다. (O-2) 자신의 발표 후 친구의 발표를 경청하면서 학생 스스로 발표 태도나 표현 방식에 대해 반성적으로 평가하는 기회를 갖는다. (O-3, O-4)

학생들은 이와 같은 토의시간을 빌어 자신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발표하기 위하여 자료를 논리적으로 배열하며 자신들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발표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S-1) 뿐만 아니라 토의는 타인의 의견을 듣고 자신의 의견과는 다른 부분을 질문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관점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S-2, S-3) 읽기 자료 1-5와 두 입장 차이를 바탕으로 환경 보전을 하면서 각 나라의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하여 써보자. (L-6, S-4)

본 수업에서 나타나는 의사소통 능력의 범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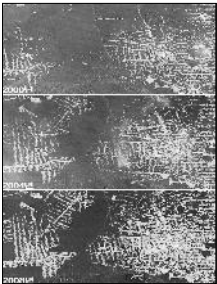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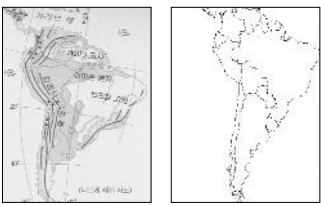
〈표Ⅳ-5〉 수업 I 에서 나타나는 의사소통 기능의 유형

문해력	구두표현력	도해력	사회적 기능
L-1, L-2, L-3, L-4, L-6	O-1, O-2, O-3, O-4	G-1, G-2, G-3, G-4	S-1, S-3, S-4

○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NIE 수업지도안 I

〈표Ⅳ-6〉 아마존 지역 개발 관련 수업 지도안

단원명	Ⅶ. 아메리카 및 오세아니아의 생활
	2. 자원이 풍부한 라틴 아메리카
	4) 급증하는 인구와 지역 개발 문제
학습목표	· 신문 기사를 통해 아마존 강 유역의 산림 파괴에 대한 현황을 이해할 수 있다.
	· 아마존 강 유역 개발 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집단의 입장을 정리하고 자신의 생각을 발표할 수 있다.
학습자료	▶ 아마존의 복수, 북극의 경고 (한국일보) 2009-03-07. 10면
	▶ “아마존 개발, 터전 사수” 페루 정부 - 원주민 충돌 유혈상태 해법 찾기 고심 (국민일보) 2009-06-12. 05면
	▶ 브라질 “선진국, 아마존 보호비용 내야” (내일신문) 2009-04-20, 08면
	▶ 볼리비아 “석유, 가스 부문 50억 弗 투자” (연합뉴스) 2009-07-22
	▶ 브라질 학계 · 농업계 절충안 대두/ 아마존 ‘생화학 자원 이용’ 新 개발론(한국일보) 2005-04-16 14면
	▶ 사진자료 (아마존 항공사진)

과정	학습 내용	교수 학습 활동	학습형태 및 자료	시간(분)
도입	동기유발	▷ 아마존이란 명칭에 관한 유래 들려주기 (에피소드 형식) - 아마존의 어원: 그리스어로 '가슴이 없다.'란 뜻. - 그리스 신화 속 아마존은 웅맹무쌍한 여전사 부족임. - 아마존 탐사 시 발견한 아마존 부족의 머리 모양을 보고 여자로 착각하여 아마존이란 이름을 명명 ▷ 그림 자료를 보여주고 이야기 나누기(G-1, G-3) - 아마존이 점차 개발되고 있는 항공사진의 모습 (2000년, 2004년, 2008년의 모습) 	사진자료	10분
	학습문제 확인	라틴 아메리카의 아마존 지역 개발과 관련한 다양한 입장을 알아보고,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여 발표해보자.		
전개	아마존 열대우림의 위치와 분포 알기	▶▷ 다음은 라틴 아메리카의 백지도이다. 오늘 배울 아마존 열대 우림 지역을 지도에 표시하고 아마존 우림이 분포한 국가를 알아보자. 기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자. (G-2, G-4) - 페루, 에콰도르, 브라질,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 연중 비가 많이 내려 습하고, 기온이 높아 덥다. (열대 우림 기후)  ▶▷ 4개의 신문 기사는 아마존 열대 우림과 관련한 여러 가지의 입장을 나타낸다. 기사를 읽고 정부의 입장, 원주민의 입장, 환경운동가의 입장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 중심 주장을 글로 써보자. (L-1, L-2, L-4) - 자료 1: 아마존 열대 우림이 분포하고 있는 국가의 입장에서 아마존 개발에 따른 여러 가지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기란 쉽지 않다. 특히 국토의 1/3이 열대 우림인 브라질 정부는 아마존 개발을 포기하는 대가의 비용을 선진국에게 요구하고 있다. 왜냐하면 밀림을 농지로 개발하려는 아마존의 원주민들 또한 생존을 위하여 농사를 짓는 것이기 때문이다.	백지도 신문자료	30분

과정	학습 내용	교수 학습활동	학습형태 및 자료	시간(분)
전개	아마존 열대우림의 위치와 분포 알기	- 자료 2: 아마존에는 목재나 약초와 같은 자원만이 풍부한 것이 아니라 최근에는 유전도 발견되었다. 볼리비아는 라틴 아메리카 지역 중에서 베네수엘라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천연가스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고, 아마존 유전 개발을 통해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을 것이라 전망된다. - 자료 3: 최근 페루 정부와 아마존 원주민들의 유혈 사태는 아마존 지역 개발을 둘러싼 두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페루 정부는 아마존 개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나 나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내세우며 개발을 주장하는 반면, 원주민들은 자신들의 아마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개발을 반대한다. - 자료 4: 아마존은 지구 전체 산소 공급량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지구의 허파이다. 아마존의 우림이 개발되면서 산소 공급에 차질이 생긴 것 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전 세계의 기후변화에 크게 영향을 끼쳐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 아마존 열대 우림 개발과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여 발표해보자. (L-2, O-1, O-2) 친구들의 발표를 듣고(O-4), 아마존 열대 우림 개발에 관한 토의를 해보자. (L-3, O-3, S-3) - 개발론: 아마존 강 유역의 목재와 지하자원을 개발하여 수출함으로써 외화를 벌 수 있다. 만일 선진국에서 개발을 막고 싶다면, 각 정부에 열대 우림이 제공하는 산소 사용료를 내야 한다. 이미 지구 환경을 오염시켜 산업화를 이룩한 선진국의 요구 때문에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을 포기할 수는 없다. - 보호론: 아마존 강 유역은 지구 산소의 20%를 공급해 주는 지구의 허파이다. 이러한 추세로 개발이 진행된다면 지구의 대기 오염은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 또, 개발을 위해 나무를 벌채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로 인해 지구 온난화 현상이 가속화된다. 환경 문제는 어느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 전체의 문제이다. 만일 토지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면 각 정부는 토지 개혁을 실시하여 소수에게 독점되어 있는 토지를 농민들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 자료 1-5와 두 입장 차이를 바탕으로 환경 보전을 하면서 각 나라의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하여 써보자. (L-6, S-4)	토의활동지 신문자료	
정리	마무리	▷ 수업정리		5분

○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수업 설계 II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춘 본 연구의 두 번째 수업은 첫 번째 수업 설계와 마찬가지로 중학교 1학년 사회 'Ⅶ. 아메리카 및 오세아니아의 생활' 중 2단원인 '자원이 풍부한 라틴 아메리카'의 내용요소 중 인종 및

문화와 관련된 수업을 내용으로 한다. 이 수업에서 드러나는 의사소통 기능을 수업 지도안에 나온 절차대로 살펴보기로 한다.

▶ 도입

라틴 아메리카에 분포하는 다양한 인종에 대한 본 수업을 처음 시작할 때 학생들의 동기를 유발하기 위하여 혼혈 인종의 유명한 사진을 3장 제시한다. 학생들에게 사진 속 주인공들의 공통점을 찾게 하여 혼혈인임을 깨닫게 하고 흥미를 자극한다. 이와 같은 활동은 다양한 그래픽 정보에서 의미 있는 것을 파악하는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킨다. (G-1) 이 뿐만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는 정보에서의 중요한 점을 말로 표현하고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말해 보는 것 또한 구두표현력 향상에 기여한다. (O-1, O-2)

▶ 전개

신문 기사인 읽기 자료 2-1을 읽고, 자료에서 제공하는 내용을 이해하고 의미를 구성한다. 라틴 아메리카에 사는 인종 중 혼혈 인종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현실을 알고(L-1) 라틴 아메리카의 역사와 관련하여 파악한다. (L-2) 라틴 아메리카의 대표적인 인종 중 대표적인 혼혈은 메스티소, 물라토, 삼보가 있다. 메스티소는 인디오와 백인 간의 혼혈이고, 물라토는 백인과 흑인 간의 혼혈이며 삼보는 흑인과 인디오 간에 나타나는 인종이다. 학생들은 각 인종별 특징을 읽기 자료의 글을 바르게 읽음으로써 의미를 구성하여 습득하게 된다. (L-1) 인종과 그 특징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졌다면 라틴 아메리카 내에 다양한 인종이 어떠한 분포양상을 띠면서 거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라틴 아메리카의 인종 분포를 표현한 도형표현도'에서 학습한다. (G-1, G-3)

이처럼 다양한 인종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라틴 아메리카는 우리나라와 같은 동일한 인종만이 살아가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흥미로운 장소감을 지니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학생들은 읽기 자료 2-2를 읽고, 자신들의 선행적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인종이 모여 사는 라틴 아메리카의 문화적 특징에는 무엇이 있을지 토의해보자. (L-3, S-2)

문화적 특징에 대한 토의 결과를 글로 작성하여 토의 보고서를 작성한다. (L-8, S-4) 본 수업의 마지막 절차로 라틴 아메리카에 사는 토래의 친구와 편팔을 한다고 가정해 보고 편지를 써보자. (L-6, L-7)

본 수업에서 나타나는 의사소통 능력의 범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Ⅳ-7〉 수업 Ⅱ에서 나타나는 의사소통 기능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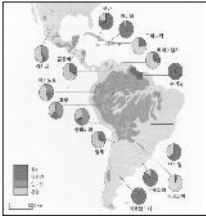
문해력	구두표현력	도해력	사회적 기능
L-1, L-2, L-3, L-6, L-7, L-8	O-1, O-2	G-1, G-3	S-2, S-4

○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수업지도안 NIE 수업지도안 Ⅱ

〈표Ⅳ-8〉 인종 및 문화 관련 수업 지도안

단원명	Ⅶ. 아메리카 및 오세아니아의 생활
	2. 자원이 풍부한 라틴 아메리카
학습목표	2) 다양한 인종의 구성
	· 라틴 아메리카의 혼혈 인종을 알고 그에 관한 역사적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 · 혼혈 인종의 문화를 이해하고 문화의 다양성에 대하여 개방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다.
학습자료	▶ 〈박정은의 길에서 만난 사람〉 찬란했던 아스텍 문명 아래 ‘하나 되기’ 몸부림 멕시코시대-정체성에 대한 고민 (세계일보) 2008-12-15
	▶ ‘南美 식민지화 과정서 유전자 지도 격변’ (BBC) (연합뉴스) 2008-03-22
	▶ 사진 자료

과정	학습 내용	교수-학습활동	학습형태 및 자료	시간(분)
도입	동기유발	▷ 혼혈인 사진 보여주기  - 혼혈의 의미 알아보기	사진자료	10분
	학습문제확인	▷ 위에 제시된 사진을 보고 라틴 아메리카의 인종에 대하여 이야기해보기 (G-1, O-1, O-2)		
전개	혼혈의 역사	▶▷ 읽기 자료 1을 읽고, 라틴 아메리카에 나타나는 혼혈의 역사를 알아보자. (L-1, L-2) - 라틴 아메리카에 도착한 유럽인들은 대부분 남성들뿐이었다. 이들이 라틴 아메리카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원주민인 인디오 여성이나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 여성들과 관계를 맺어 혼혈이 생겨났다.	신문자료	30분
	혼혈의 분포 및 특징	▶▷ 메스티소, 무라토, 삼보 각각의 특징을 알아보자. - 메스티소 : 인디오와 백인의 혼혈 - 무라토 : 흑인과 백인의 혼혈 - 삼보 : 흑인과 인디오의 혼혈		

과정	학습 내용	교수 학습활동	학습형태 및 자료	시간(분)
전개	혼혈의 문화	▶▷ 혼혈 인종의 분포를 알아보자. (G-2) - 라틴 아메리카의 인종 분포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는 백인들이 많고, 멕시코,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칠레 등에는 메스티소가 많으며, 16세기 후반 아프리카의 흑인 노예가 유입되었던 브라질의 동부 해안 및 카리브해 연안 지역에는 삼보와 몰라토가 많다. 한편, 유럽인의 침략으로 인해 오지로 쫓겨난 원주민인 인디오들은 에콰도르, 볼리비아 등지의 산악 지대에서 그들 조상의 생활방식으로 살고 있다. 앵글로 아메리카에 비해 인종 차별이 적은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혼혈 인종 간의 혼혈도 차츰 늘어나 오늘날에는 단순하게 신체적 특징만으로 인종을 구분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졌다.  ▶▷ 읽기 자료 2-2를 읽고, 다양한 인종이 함께 살아가는 라틴 아메리카의 문화적 특징에는 무엇이 있을지 토의해보자. (L-3, S-2) 토의 결과를 글로 작성해보자. (S-4) - 혼혈인종이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라틴 아메리카는 인종적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것이다. 원주민인 인디오들과 새로 정착해 온 유럽인, 흑인들 모두가 이들의 조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성은 현재 라틴 아메리카를 상징하는 문화적 자산이다. 혼혈인들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의 차별은 존재한다. 스페인 혈통의 사람들이 인디오나 흑인 혈통의 사람보다는 더 많은 권력을 누리고 있다. 이것은 식민지 시대의 산물이다. ▶▷ 라틴 아메리카에 사는 또래의 친구와 편팔을 한다고 가정해 보고 편지를 써보자. (L-6, L-7)	신문자료	
정리	마무리	▷ 수업 정리		5분

2) 설문 조사

본 연구는 특정한 교과에서 NIE 수업의 적용을 통하여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이 어떻게 변화를 보이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즉 NIE 학습 프로그램이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미친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신문을 활용한 수업은 읽기, 쓰기, 말하기 등을 포함하여 학생들의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가장 활용도가 높고 NIE 수업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사회과 수업에 적용한다.

NIE 수업을 실시한 학급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NIE 수업 후 수업을 어떻게 생각하고 평가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 문항은 총 20문항이며 문항은 크게 문해력, 구두표현력, 도해력, 사회적 기능 부분으로 범주화할 수 있는데 각각 총 8문항, 4문항, 4문항, 4문항으로 구분될 수 있다.

다음 표는 설문 조사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Ⅳ-9〉 설문 영역의 구분

소영역		대영역
문해력(Literacy)	읽기(Reading)	· 글자를 바르게 읽고 의미를 찾아내기 · 글을 능동적으로 읽으면서 의미를 구성하기 · 글을 해석하고 비판하고 다른 사람과 그 결과를 교환하기
	쓰기(Writing)	· 쓰기의 체계를 알고, 의미와 글자의 관계성을 파악하기 · 증거나 논증을 이용하여 논리적인 글쓰기(설명적 글쓰기) · 의미를 구성하고 다양한 상징적 매체를 사용하여 표현하기(표현적 글쓰기) · 느끼고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창조적으로 글쓰기(상상적 글쓰기) · 정보의 종류에 따라 글과의 관계를 비판적으로 보고 쓴 글을 교환하기(비판적 글쓰기)
구두표현력(Oracy)		· 자신의 느낌과 생각, 아이디어를 언어로 표현하기 ·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야기하기 ·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말하는가를 파악하기 · 자신의 표현을 반성적으로 평가하고 수정하기
도해력(Graphicacy)		· 도표(그래프, 다이어그램 등)와 지도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분석하기 · 주어진 정보를 다양한 형태의 도표와 지도 등으로 나타내기 · 자료를 범주화하고 논리적으로 배열하고 해석하기 · 다양한 정보를 다양한 형태의 도표 등으로 효과적으로 발표하고 보여주기
사회적 기능(Social skills)		· 자료를 논리적으로 배열하고 효과적으로 발표하기 · 집단토의와 같은 모둠활동에 참여하여 역할을 하기 · 질문을 제기하고 다른 관점으로 쟁점을 평가하기 · 에세이나 보고서를 작성하기

3) 성취도 평가

NIE 수업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관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NIE 수업을 실시한 후 수업을 받은 학생들과 수업을 받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성취도 평가를 실시하였다. 성취도 평가는 지필 평가의 형식으로 치러졌으며 서술식 문항과 객관식 문항을 배합하여 구성하였다. 문항의 수는 총 11문항이고, 각 문항은 본 연구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의사소통 능력의 항목에 부합시키고자 하는 목적 하에 개발되었다.

하지만 지필 평가라는 평가 형식의 제한으로 의사소통 능력의 두 번째 범주에 속하는 구두표현력(Oracy)을 적절히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성취도 평가에서는 고려하지 않기로 하였다. 총 20항목의 의사소통 능력에서 모든 항목에 일대일로 대응하는 문항을 개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여러 항목을 중첩 허용하여 문항을 개발하였다. 각 문항별 의사소통 능력 평가 요소는 <표Ⅳ-10>과 같다. 성취도 평가의 채점은 서술식 문항의 경우 따로 채점 기준표를 설정·평가하여 최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표Ⅳ-10> 성취도 평가 문항별 평가 요소

문항 1	L-2	글을 능동적으로 읽으면서 의미를 구성하기
문항 2	L-5	증거나 논증을 이용하여 논리적인 글쓰기(설명적 글쓰기)
문항 3	L-4	쓰기의 체계를 알고, 의미와 글자의 관계성을 파악하기
문항 4	L-7	느끼고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창조적으로 글쓰기(상상적 글쓰기)
문항 5	L-1	글자를 바르게 읽고 의미를 찾아내기
문항 6	G-1	도표(그래프, 다이어그램, 사진 등)와 지도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분석하기
	G-3	자료를 범주화하고 논리적으로 배열하고 해석하기
문항 7	G-2	주어진 정보를 다양한 형태의 도표와 지도 등으로 나타내기
	G-4	다양한 정보를 다양한 형태의 도표 등으로 효과적으로 발표하고 보여주기
문항 8	S-1	자료를 논리적으로 배열하고 효과적으로 발표하기
	S-2	집단토의와 같은 모둠활동에 참여하여 역할을 하기
문항 9	L-6	의미를 구성하고 다양한 상징적 매체를 사용하여 표현하기(표현적 글쓰기)
문항 10	L-8	정보의 종류에 따라 글과의 관계를 비판적으로 보고 쓴 글을 교환하기(비판적 글쓰기)
	S-3	질문을 제기하고 다른 관점으로 쟁점을 평가하기
	L-3	글을 해석하고 비판하고 다른 사람과 그 결과를 교환하기
문항 11	L-6	의미를 구성하고 다양한 상징적 매체를 사용하여 표현하기(표현적 글쓰기)
	S-4	에세이나 보고서를 작성하기

3. 설문 결과 분석

2차시에 걸친 NIE 수업을 실시한 후 수업을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하였다. 설문 문항은 총 20개로 문항에 대한 응답은 총 다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 처리는 다음과 같다.

〈표Ⅳ-11〉 문항 응답의 처리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또한 설문 응답을 지역별, 성별 그리고 전체 응답 수로 구분해 살펴보기 위하여 각 문항별로 전체 응답자와 지역별 응답자 그리고 남녀 응답자를 구분하여 응답의 빈도수와 비율을 조사하였다. 각 문항별 통계분석표를 보면 응답의 절대적인 수와 비율이 있고 통계량에 카이제곱 값이 제시되어 있는데, 카이제곱 값이 클수록 두 집단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즉, 경기와 서울 두 집단의 응답에 대한 카이제곱이 40일 경우, 30일 때보다 두 집단 간의 응답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고 해석할 수 있다.

1) 문해력(Literacy)

○ L-1 글자를 바르게 읽고 의미를 찾아내기

글자를 바르게 읽고 의미를 찾아내는데 수업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설문에 대한 응답으로는 “그렇다”라는 긍정적인 대답이 전체의 41.1%를 차지하였다. 지역별 응답의 비율을 살펴보면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서울 지역의 학생들이 설문 문항에 대한 NIE 수업을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 응답의 비율은 유의한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아 성별에 관계없이 NIE 수업의 효과를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표Ⅳ-12〉 글자를 바르게 읽고 의미를 찾아내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총합	통계량	값	확률
비 서울	빈도	0	9	59	34	11	113	카이제곱	34.76	〈.0001
	비율	0	8.0	52.2	30.1	9.7	100			
서울	빈도	2	1	35	70	32	140			
	비율	1.4	0.7	25	50	22.9	100			

		①	②	③	④	⑤	총합	평균	표준편차
총합	빈도	2	10	94	104	43	253	3.70	0.83
	비율	0.8	4.0	37.2	41.1	17	100		

		①	②	③	④	⑤	총합	통계량	값	확률
남자	빈도	1	4	25	31	12	73	카이제곱	1.34	0.8547
	비율	1.4	5.5	34.2	42.5	16.4	100			
여자	빈도	1	6	69	73	31	180			
	비율	0.6	3.3	38.3	40.6	17.2	100			

○ L-2 글을 능동적으로 읽으면서 의미를 구성하기

글을 능동적으로 읽으면서 글의 의미를 스스로 구성하는데 본 연구의 NIE 수업이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응답으로 “그렇다”라는 긍정적인 대답이 전체의 40.7%를 차지하였다. 지역별 응답의 비율을 살펴보면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서울 지역의 학생들이 설문 문항에 대한 NIE 수업을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 응답의 비율은 유의한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아 성별에 관계없이 NIE 수업의 효과를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표Ⅳ-13〉 글을 능동적으로 읽으면서 의미를 구성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총합	통계량	값	확률
비 서울	빈도	2	17	42	42	11	114	카이제곱	27.18	〈.0001
	비율	1.8	14.9	36.8	36.8	9.7	100			
서울	빈도	0	2	43	60	35	140			
	비율	0	1.4	30.7	42.9	25	100			

		①	②	③	④	⑤	총합	평균	표준편차
총합	빈도	2	19	85	102	46	254	3.68	0.89
	비율	0.8	7.5	33.4	40.7	18.1	100		

		①	②	③	④	⑤	총합	통계량	값	확률
남자	빈도	1	5	24	30	13	73	카이제곱	0.534	0.9701
	비율	1.4	6.9	32.9	41.1	17.8	100			
여자	빈도	1	14	61	72	33	181			
	비율	0.6	7.7	33.7	39.8	18.2	100			

○ L-3 글을 해석하고 비판하고 다른 사람과 그 결과를 교환하기

본 연구의 NIE 수업이 글을 해석하고 비판하여 그 결과를 다른 사람과 교환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고 생각하는 학생의 수는 전체의 41.5%를 차지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서울 지역의 학생들이 설문 문항에 대한 NIE 수업을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응답 반응에 대한 지역별 차이가 있음이 검증된다. 이 설문 문항에 대한 성별 응답의 비율은 유의한 차이가 어느 정도 드러나는데 여자 학생의 경우, 수업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시각을 표현하였다.

〈표Ⅳ-14〉 글을 해석하고 비판하고 다른 사람과 그 결과를 교환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총합	통계량	값	확률
비서울	빈도	4	22	39	37	12	114	카이제곱	29.4957	〈.0001
	비율	3.5	19.3	34.2	32.5	10.5	100			
서울	빈도	0	8	29	68	34	139			
	비율	0	5.8	20.9	48.9	24.5	100			

		①	②	③	④	⑤	총합	평균	표준편차
총합	빈도	4	30	68	105	46	253	3.64	0.97
	비율	1.6	11.9	26.9	41.5	18.2	100		

		①	②	③	④	⑤	총합	통계량	값	확률
남자	빈도	2	11	20	23	17	73	카이제곱	5.7148	0.2215
	비율	2.7	15.1	27.4	31.5	23.3	100			
여자	빈도	2	19	48	82	29	180			
	비율	1.1	10.6	26.7	45.6	16.1	100			

○ L-4 쓰기의 체계를 알고, 의미와 글자의 관계성을 파악하기

쓰기의 체계를 알고 의미와 글자의 관계성을 파악하기 위한 NIE 수업 효과에 대한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 중 38.7%가 “그렇다”라고 평가하였고 비슷한 수치인 34.4%의 학생이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질문에 대한 지역별 차이는 비교적 잘 나타나는데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서울 소재 중학교 학생들이 본 NIE 수업을 보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성별에 따른 응답의 비율 또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데 전반적으로 여자 학생의 경우가 쓰기에 대한 NIE 수업이 효과가 있었음을 드러내 준다.

〈표Ⅳ-15〉 글의 의미와 글자의 관계성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총합	통계량	값	확률
비서울	빈도	3	17	54	31	9	114	카이제곱	38.171	〈.0001
	비율	2.6	14.9	47.4	27.2	7.9	100			
서울	빈도	0	6	33	67	33	139			
	비율	0	4.3	23.7	48.2	23.7	100			

		①	②	③	④	⑤	총합	평균	표준편차
총합	빈도	3	23	87	98	42	253	3.61	0.91
	비율	1.2	9.1	34.4	38.7	16.6	100		

		①	②	③	④	⑤	총합	통계량	값	확률
남자	빈도	1	10	26	20	16	73	카이제곱	7.6231	0.1064
	비율	1.4	13.7	35.6	27.4	21.9	100			
여자	빈도	2	13	61	78	26	180			
	비율	1.1	7.2	33.9	43.3	14.4	100			

○ L-5 증거나 논증을 이용하여 논리적인 글쓰기(설명적 글쓰기)

본 연구의 NIE 수업에서 증거나 논증을 이용하여 논리적인 글쓰기 능력의 향상에 대해 “그렇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한 학생의 비율이 34.3%로 5가지의 응답 항목 중 가장 높지만,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 또한 33.5%로 매우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표Ⅳ-16〉 증거나 논증을 이용하는 논리적인 글쓰기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총합	통계량	값	확률
비서울	빈도	8	18	46	32	10	114	카이제곱	29.1017	〈.0001
	비율	7.0	15.8	40.4	28.1	8.8	100			
서울	빈도	1	8	39	55	37	140			
	비율	0.7	5.7	27.9	39.3	26.4	100			

		①	②	③	④	⑤	총합	평균	표준편차
총합	빈도	9	26	85	87	47	254	3.54	1.03
	비율	3.5	10.2	33.5	34.3	18.5	100		

		①	②	③	④	⑤	총합	통계량	값	확률
남자	빈도	6	7	24	24	12	73	카이제곱	6.6664	0.1546
	비율	8.2	9.6	32.9	32.9	16.4	100			
여자	빈도	3	19	61	63	35	181			
	비율	1.7	10.5	33.7	34.8	19.3	100			

○ L-6 의미를 구성하고 다양한 상징적 매체를 사용하여 표현하기(상상적 글쓰기)

글을 읽고 의미를 구성한 후 산출된 의미를 다양한 상징적 매체를 사용하여 표현하는데 대한 NIE 수업의 효과성을 묻는 질문에는 “보통이다”의 값이 전체 학생 비율의 35.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앞서 진술된 다섯 가지의 항목과는 다르게 상징적 매체 이용 정도에 대한 NIE 수업 효과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나온 것을 알 수 있다.

〈표Ⅳ-17〉 의미를 구성하고 다양한 상징적 매체를 사용하여 표현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총합	통계량	값	확률
비서울	빈도	5	18	48	26	16	113	카이제곱	37.749	〈.0001
	비율	4.4	15.9	42.5	23.0	14.2	100			
서울	빈도	1	1	41	61	36	140			
	비율	0.7	0.7	29.3	43.6	25.7	100			

		①	②	③	④	⑤	총합	평균	표준편차
총합	빈도	6	19	89	87	52	253	3.64	0.97
	비율	2.4	7.5	35.2	34.4	20.5	100		

		①	②	③	④	⑤	총합	통계량	값	확률
남자	빈도	3	5	28	20	17	73	카이제곱	3.4924	0.479
	비율	4.1	6.8	38.4	27.4	23.3	100			
여자	빈도	3	14	61	67	35	180			
	비율	1.7	7.8	33.9	37.2	19.4	100			

○ L-7 느끼고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창조적으로 글쓰기(상상적 글쓰기)

본 연구의 수업이 자신이 느끼고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창조적으로 글을 쓰는데 도움이 되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대답한 학생의 비율은 전체의 32.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 응답 비율은 다소 유의한 차이가 드러나는데, 비 서울 지역의 학생들보다 서울 지역의 학생들이 수업에 대한 상상적 글쓰기 요소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Ⅳ-18〉 느끼고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창조적인 글쓰기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총합	통계량	값	확률
비 서울	빈도	5	31	42	27	9	114	카이제곱	44.5034	〈.0001
	비율	4.4	27.2	36.8	23.7	7.9	100			
서울	빈도	0	7	40	56	36	139			
	비율	0	5.0	28.8	40.3	25.9	100			

		①	②	③	④	⑤	총합	평균	표준편차
총합	빈도	5	38	82	83	45	253	3.50	1.02
	비율	2.0	15.0	32.4	32.8	17.8	100		

		①	②	③	④	⑤	총합	통계량	값	확률
남자	빈도	3	15	24	18	13	73	카이제곱	6.5342	0.1626
	비율	4.1	20.6	32.9	24.7	17.1	100			
여자	빈도	2	23	58	65	32	180			
	비율	1.1	12.8	32.2	36.1	17.8	100			

○ L-8 정보의 종류에 따라 글과의 관계를 비판적으로 보고 쓴 글을 교환하기(비판적 글쓰기)

정보의 종류에 따라 글과의 관계를 비판적으로 보고 쓴 글을 교환하는 비판적 글쓰기를 검증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보통이다”라는 의견이 전체 학생의 36.3%를 차지하였다. 비슷한 수치로 33.6%가 “그렇다”라고 응답하고 있다. 이 설문 문항에 대한 비 서울 지역의 학생이 “보통이다”라고 지배적으로 응답한 반면, 서울 지역의 학생들은 대체로 “그렇다”라고 응답하고 있다.

〈표Ⅳ-19〉 정보의 종류에 따라 글과의 관계를 비판적으로 보고 쓴 글을 교환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총합	통계량	값	확률
비 서울	빈도	3	20	54	26	10	113	카이제곱	48.6576	〈.0001
	비율	2.7	17.7	47.8	23.0	8.9	100			
서울	빈도	2	1	38	59	40	140			
	비율	1.4	0.7	27.1	42.1	28.6	100			

		①	②	③	④	⑤	총합	평균	표준편차
총합	빈도	5	21	92	85	50	253	3.62	0.96
	비율	2.0	8.3	36.4	33.6	19.8	100		

		①	②	③	④	⑤	총합	통계량	값	확률
남자	빈도	3	10	28	16	16	73	카이제곱	10.4839	0.033
	비율	4.1	13.7	38.4	21.9	21.9	100			
여자	빈도	2	11	64	69	34	180			
	비율	1.1	6.1	35.6	38.3	18.9	100			

2) 구두표현력(Oracy)

○ O-1 자신의 느낌과 생각, 아이디어를 언어로 표현하기

본 연구의 NIE 수업이 학생 자신의 느낌과 생각, 아이디어를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는지를 묻는 질문에 전체 학생의 35.8%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지역별, 성별에 따른 이 문항의 응답 비율은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Ⅳ-20〉 자신의 느낌과 생각, 아이디어를 언어로 표현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총합	통계량	값	확률
비 서울	빈도	6	17	47	31	13	114	카이제곱	25.8102	〈.0001
	비율	5.3	14.9	41.2	27.2	11.4	100			
서울	빈도	1	6	39	60	34	140			
	비율	0.7	4.3	27.9	42.9	24.3	100			

		①	②	③	④	⑤	총합	평균	표준편차
총합	빈도	7	23	86	91	47	254	3.60	0.97
	비율	2.8	9.1	33.9	35.8	18.5	100		

		①	②	③	④	⑤	총합	통계량	값	확률
남자	빈도	5	6	21	25	16	73	카이제곱	7.8084	0.0989
	비율	6.9	8.2	28.8	34.3	21.9	100			
여자	빈도	2	17	65	66	31	181			
	비율	1.1	9.4	35.9	36.5	17.1	100			

○ O-2 중요하고 의미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야기하기

자신이 생각하는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는데 대한 본 수업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질문에는 “그렇다”라는 긍정적인 대답이 전체의 39.8%를 차지하였다.

〈표Ⅳ-21〉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는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총합	통계량	값	확률
비 서울	빈도	6	14	36	42	16	114	카이제곱	24.5457	〈.0001
	비율	5.3	12.3	31.6	36.8	14.0	100			
서울	빈도	1	5	28	59	47	140			
	비율	0.7	3.6	20	42.1	33.6	100			

		①	②	③	④	⑤	총합	평균	표준편차
총합	빈도	7	19	64	101	63	254	3.76	1.00
	비율	2.8	7.5	25.2	39.8	24.8	100		

		①	②	③	④	⑤	총합	통계량	값	확률
남자	빈도	3	7	17	28	18	73	카이제곱	1.4902	0.8284
	비율	4.1	9.6	23.3	38.4	24.7	100			
여자	빈도	4	12	47	73	45	181			
	비율	2.2	6.6	26.0	40.3	24.9	100			

○ O-3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말하는가를 파악하기

수업을 통해 자신이 말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어떻게 말하는지를 아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학생의 수는 전체의 40.9%이고 다른 문항에 대한 응답에 비해 “보통이다”라고 대답한 비율과 뚜렷한 차이를 드러냈다. 성별 응답 비율은 남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데, “그렇다”고 응답한 학생은 여학생이 많았지만,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남학생이 더 높았다.

〈표Ⅳ-22〉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말하는가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총합	통계량	값	확률
비서울	빈도	5	11	37	43	17	113	카이제곱	15.5709	0.0037
	비율	4.4	9.7	32.7	38.1	15.0	100			
서울	빈도	0	5	36	60	38	139			
	비율	0	3.6	25.9	43.2	27.3	100			

		①	②	③	④	⑤	총합	평균	표준편차
총합	빈도	5	16	73	103	55	252	3.74	0.94
	비율	2.0	6.4	29.0	40.9	21.8	100		

		①	②	③	④	⑤	총합	통계량	값	확률
남자	빈도	2	7	20	23	21	73	카이제곱	6.5571	0.1612
	비율	2.7	9.6	27.4	31.5	28.8	100			
여자	빈도	3	9	53	80	34	179			
	비율	1.7	5.0	29.6	44.7	19.0	100			

○ O-4 자신의 표현을 반성적으로 평가하고 수정하기

학생 자신의 표현에 대해 배타적, 반성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따른 피드백으로 표현을 수정하는데 대한 수업의 효과성을 묻는 질문에는 “그렇다”라는 긍정적인 대답이 전체의 34.4%를 차지하였고 뒤이어 “보통이다”라고 답한 학생이 전체의 31.2%이다. 성별의 응답 차이가 나타나며 여학생의 경우가 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표Ⅳ-23〉 자신의 표현을 반성적으로 평가하고 수정하는 기회를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총합	통계량	값	확률
비서울	빈도	3	24	39	34	12	112	카이제곱	23.8413	〈.0001
	비율	2.7	21.4	34.9	30.4	10.7	100			
서울	빈도	1	8	39	52	38	138			
	비율	0.7	5.8	28.3	37.7	27.5	100			

		①	②	③	④	⑤	총합	평균	표준편차
총합	빈도	4	32	78	86	50	250	3.58	1.00
	비율	1.6	12.8	31.2	34.4	20	100		

		①	②	③	④	⑤	총합	통계량	값	확률
남자	빈도	3	12	21	17	18	71	카이제곱	10.2305	0.0367
	비율	4.2	16.9	29.6	23.9	25.4	100			
여자	빈도	1	20	57	69	32	179			
	비율	0.6	11.2	31.8	38.6	17.9	100			

3) 도해력(Graphicacy)

○ G-1 도표(그래프, 다이어그램 등)와 지도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분석하기

도표와 지도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분석하는데 이 수업이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한 물음에 전체 학생의 33.1%가 동일하게 “그렇다”, “보통이다”로 응답하였다. 하지만 지역별로 살펴보면 “그렇다”의 응답은 서울 지역의 학생이, “보통이다”라는 응답은 비 서울 지역의 학생이 주로 응답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Ⅳ-24〉 도표, 그래프, 사진 등과 지도의 정보를 파악하고 분석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총합	통계량	값	확률
비 서울	빈도	8	12	44	32	16	112	카이제곱	20.1165	0.0005
	비율	7.1	10.7	39.3	28.6	14.3	100			
서울	빈도	2	5	39	51	42	139			
	비율	1.4	3.6	28.1	36.7	30.2	100			

		①	②	③	④	⑤	총합	평균	표준편차
총합	빈도	10	17	83	83	58	251	3.64	1.03
	비율	4.0	6.8	33.1	33.1	23.1	100		

		①	②	③	④	⑤	총합	통계량	값	확률
남자	빈도	6	6	25	22	14	73	카이제곱	5.9507	0.2029
	비율	8.2	8.2	34.3	30.1	19.2	100			
여자	빈도	4	11	58	61	44	178			
	비율	2.3	6.2	32.6	34.3	24.7	100			

○ G-2 주어진 정보를 다양한 형태의 도표와 지도 등으로 나타내기

본 연구의 NIE 수업이 주어진 정보를 다양한 형태의 도표와 지도 등으로 표현하는데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한 학생은 전체의 34.5%, “보통이다”라고 대답한 학생은 32.5%로 비슷하게 나타나지만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지역의 학생이 수업의 효과성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Ⅳ-25〉 주어진 정보를 다양한 형태의 도표와 지도 등으로 나타내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총합	통계량	값	확률
비 서울	빈도	7	21	48	25	12	113	카이제곱	31.8022	〈.0001
	비율	6.2	18.6	42.5	22.1	10.6	100			
서울	빈도	1	11	34	62	31	139			
	비율	0.7	7.9	24.5	44.6	22.3	100			

		①	②	③	④	⑤	총합	평균	표준편차
총합	빈도	8	32	82	87	43	252	3.50	1.02
	비율	3.2	12.7	32.5	34.5	17.1	100		

		①	②	③	④	⑤	총합	통계량	값	확률
남자	빈도	3	14	23	22	11	73	카이제곱	4.5273	0.3393
	비율	4.1	19.2	31.5	30.1	15.1	100			
여자	빈도	5	18	59	65	32	179			
	비율	2.8	10.1	33.0	36.3	17.9	100			

○ G-3 자료를 범주화하고 논리적으로 배열하고 해석하기

주어진 자료를 범주화하고 논리적으로 배열하고 배열된 결과를 해석하는데 도움이 되었는지 묻는 질문에는 “보통이다”라고 대답한 학생이 전체의 34.9%를 차지하였다. 그 중 대부분이 비 서울지역 학생의 응답임을 알 수 있다. 지역별 응답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난다.

〈표Ⅳ-26〉 자료를 범주화하고 논리적으로 배열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총합	통계량	값	확률
비 서울	빈도	7	21	51	25	9	113	카이제곱	42.911	〈.0001
	비율	6.2	18.6	45.1	22.1	8.0	100			
서울	빈도	4	4	37	53	41	139			
	비율	2.9	2.9	26.6	38.1	29.5	100			

		①	②	③	④	⑤	총합	평균	표준편차
총합	빈도	11	25	88	78	50	252	3.52	1.05
	비율	4.4	9.9	34.9	31.0	19.8	100		

		①	②	③	④	⑤	총합	통계량	값	확률
남자	빈도	4	7	25	23	14	73	카이제곱	0.3501	0.9864
	비율	5.48	9.59	34.25	31.51	19.18	100			
여자	빈도	7	18	63	55	36	179			
	비율	4.0	10.1	35.2	30.7	20.1	100			

○ G-4 다양한 정보를 다양한 형태의 도표 등으로 효과적으로 발표하고 보여주기

다양한 형태의 그래픽 정보를 파악하는 도해력과 그 정보를 제대로 발표하는데 NIE 수업의 효과성을 묻는 질문에 “보통이다”라고 대답한 학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른 항목에 비해 이번 항목에 대한 수업의 효과가 저조함을 알 수 있다. 지역별 응답 비율의 차이도 나타나는데 비 서울지역의 학생이 수업의 효과를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

〈표Ⅳ-27〉 다양한 정보를 다양한 형태의 도표 등으로 효과적으로 발표하고 보여주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총합	통계량	값	확률
비서울	빈도	9	20	48	31	5	113	카이제곱	44.7499	〈.0001
	비율	8.0	17.7	42.5	27.4	4.4	100			
서울	빈도	0	6	43	53	37	139			
	비율	0	4.3	30.9	38.1	26.6	100			

		①	②	③	④	⑤	총합	평균	표준편차
총합	빈도	9	26	91	84	42	252	3.49	1.00
	비율	3.6	10.3	36.1	33.3	16.7	100		

		①	②	③	④	⑤	총합	통계량	값	확률
남자	빈도	6	8	26	21	12	73	카이제곱	6.91	0.1407
	비율	8.2	11.0	35.6	28.8	16.4	100			
여자	빈도	3	18	65	63	30	179			
	비율	1.7	10.1	36.3	35.2	16.8	100			

4) 사회적기능 (Social skills)

- S-1 자료를 논리적으로 배열하고 효과적으로 발표하기

본 NIE 수업이 학생들에게 자료를 논리적으로 배열하는 능력을 길러주고 효과적으로 발표할 기회를 주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렇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전체의 39.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Ⅳ-28〉 자료를 논리적으로 배열하고 효과적으로 발표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총합	통계량	값	확률
비서울	빈도	5	23	36	39	10	113	카이제곱	41.8151	〈.0001
	비율	4.4	20.4	31.9	34.5	8.9	100			
서울	빈도	0	5	29	60	45	139			
	비율	0	3.6	20.9	43.2	32.4	100			

		①	②	③	④	⑤	총합	평균	표준편차
총합	빈도	5	28	65	99	55	252	3.68	1.00
	비율	2.0	11.1	25.8	39.3	21.8	100		

		①	②	③	④	⑤	총합	통계량	값	확률
남자	빈도	2	10	20	21	20	73	카이제곱	5.3737	0.2511
	비율	2.7	13.7	27.4	28.8	27.4	100			
여자	빈도	3	18	45	78	35	179			
	비율	1.7	10.7	25.1	43.6	19.6	100			

○ S-2 집단토의와 같은 모둠활동에 참여하여 역할을 하기

NIE 수업을 통하여 집단토의나 토론과 같은 모둠활동의 형태로 협동학습을 하고 각 소집단의 역할을 담당 하는데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물음에 “그렇다”라고 긍정적인 응답을 한 학생이 전체의 30.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Ⅳ-29〉 집단토의와 같은 활동에 참여하여 역할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총합	통계량	값	확률
비서울	빈도	4	18	41	30	19	112	카이제곱	30.0996	〈.0001
	비율	3.6	16.8	36.6	26.8	17.0	100			
서울	빈도	0	6	31	47	55	139			
	비율	0	4.3	22.3	33.9	39.6	100			

		①	②	③	④	⑤	총합	평균	표준편차
총합	빈도	4	24	72	77	74	251	3.76	1.03
	비율	1.6	9.6	28.7	30.7	29.5	100		

		①	②	③	④	⑤	총합	통계량	값	확률
남자	빈도	2	9	21	18	23	73	카이제곱	3.0321	0.5525
	비율	2.7	12.3	28.8	24.7	31.5	100			
여자	빈도	2	15	51	59	51	178			
	비율	1.1	8.4	28.7	33.2	28.7	100			

○ S-3 질문을 제기하고 다른 관점으로 쟁점을 평가하기

학생 스스로 질문을 제시하고 다른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른 관점으로 관련 문제의 쟁점을 평가하는데 본 수업이 효과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 “그렇다”라는 긍정적인 대답이 전체의 34.9%를 차지하였다.

〈표Ⅳ-30〉 질문을 제기하고 다른 관점으로 쟁점을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총합	통계량	값	확률
비	빈도	6	19	41	30	17	113	카이제곱	35.0067	〈.0001
	비율	5.3	16.8	36.3	26.6	15.0	100			
서울	빈도	1	4	30	58	46	139			
	비율	0.7	2.9	21.6	41.7	33.1	100			

		①	②	③	④	⑤	총합	평균	표준편차
총합	빈도	7	23	71	88	63	252	3.70	1.03
	비율	2.8	9.1	28.2	34.9	25	100		

		①	②	③	④	⑤	총합	통계량	값	확률
남자	빈도	5	8	21	23	16	73	카이제곱	7.2574	0.1229
	비율	6.9	11.0	28.8	31.5	21.9	100			
여자	빈도	2	15	50	65	47	179			
	비율	1.1	8.4	27.9	36.3	26.3	100			

○ S-4 에세이나 보고서를 작성하기

끝으로 본 연구의 NIE 수업이 에세이나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보통이다”라고 대답한 학생의 비율이 30.6%로 가장 높게 나타나 다른 항목과 비교하여 이 항목의 수업 효과성이 떨어짐을 알 수 있다. 성별, 지역별 응답 비율의 차이 또한 유의하게 나타나며 다른 항목의 경향과 비슷하게 서울 지역 학생일수록 여학생일수록 긍정적으로 응답했음을 알 수 있다.

〈표Ⅳ-31〉 에세이나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길러주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총합	통계량	값	확률
비서울	빈도	8	19	48	26	12	113	카이제곱	41.7276	〈.0001
	비율	7.1	16.8	42.5	23.0	10.6	100			
서울	빈도	2	8	29	49	51	139			
	비율	1.4	5.8	20.9	35.3	36.7	100			

		①	②	③	④	⑤	총합	평균	표준편차
총합	빈도	10	27	77	75	63	252	3.61	1.09
	비율	4.0	10.7	30.6	29.8	25	100		

		①	②	③	④	⑤	총합	통계량	값	확률
남자	빈도	7	10	20	15	21	73	카이제곱	12.8869	0.0118
	비율	9.6	13.7	27.4	20.6	28.8	100			
여자	빈도	3	17	57	60	42	179			
	비율	1.7	9.5	31.8	33.5	23.5	100			

5) 설문 결과의 종합

NIE 수업을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NIE 수업이 의사소통 능력에 미치는 효과성에 대해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알기 위하여 본 연구는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20개의 설문문항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그렇지 않다”는 2점, “보통이다”는 3점, “그렇다”는 4점, “매우 그렇다”는 5점으로 점수화 할 수 있는데 각 문항별 점수의 평균과 응답의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다음은 설문 문항별 응답평균 및 표준편차를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Ⅳ-32〉 설문 문항별 응답평균 및 표준편차

문항		평균	표준편차
L-1	이 수업은 글자를 바르게 읽고 의미를 찾아내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3.70	0.83
L-2	글을 능동적으로 읽으면서 의미를 구성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3.68	0.89
L-3	글을 해석하고 비판하고 다른 사람과 그 결과를 교환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3.64	0.97
L-4	글의 의미와 글자의 관계성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3.61	0.91
L-5	증거나 논증을 이용하는 논리적인 글쓰기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3.54	1.03
L-6	이 수업은 의미를 구성하고 다양한 상징적 매체를 사용하여 표현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3.64	0.97
L-7	느끼고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창조적인 글쓰기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3.50	1.02
L-8	이 수업을 듣고 정보의 종류에 따라 글과의 관계를 비판적으로 보고 쓴 글을 교환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3.62	0.96
O-1	이 수업이 자신의 느낌과 생각, 아이디어를 언어로 표현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3.60	0.97
O-2	이 수업에서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는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하십니까?	3.76	1.00
O-3	이 수업은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말하는가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3.74	0.94
O-4	이 수업이 자신의 표현을 반성적으로 평가하고 수정하는 기회를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3.58	1.00
G-1	이 수업이 도표, 그래프, 사진 등과 지도의 정보를 파악하고 분석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3.64	1.03
G-2	이 수업이 주어진 정보를 다양한 형태의 도표와 지도 등으로 나타내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3.50	1.02
G-3	이 수업이 자료를 범주화하고 논리적으로 배열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까?	3.52	1.05
G-4	이 수업은 다양한 정보를 다양한 형태의 도표 등으로 효과적으로 발표하고 보여주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3.49	1.00
S-1	이 수업은 자료를 논리적으로 배열하고 효과적으로 발표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3.68	1.00
S-2	이 수업이 집단토의와 같은 활동에 참여하여 역할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3.76	1.03
S-3	이 수업은 질문을 제기하고 다른 관점으로 쟁점을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3.70	1.03
S-4	이 수업은 에세이나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길러주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3.61	1.09

전반적으로 응답평균을 살펴보면 모두 3점대임을 알 수 있다. 설문조사라는 연구 방법을 사용할 경우 특히 본 연구와 같이 선다형의 응답을 제시한 경우 대다수의 사람은 극단적인 사향에 표시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따라서 설문 문항별 평균의 값이 비슷하게 나올 수밖에 없고, 그 때의 평균값이란 매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운데 지점에 몰리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응답평균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미묘한 차이지만 문항별 응답평균이 분명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진행된 NIE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를 항목대로 나누어 보았을 때 가장 긍정적인 대답을 얻은 항목은 구두표현력의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것으로 “O-2. 수업에서 중요하고 의미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는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한 학생의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O-2의 질문에 대한 응답평균은 ‘3.76’으로 이와 같은 수치의 평균이 나온 또 다른 항목으로는 “S-2. 이 수업이 집단토의와 같은 활동에 참여하여 역할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가 있다. 즉, 본 연구에서 설계되어 시행된 NIE 수업에 대해 학생들은 다른 수업과 다른 특징으로 보다 개방된 구두표현 문화와 개별학습의 단점을

보완해줄 협동 학습을 손꼽은 것이다. 다음은 평균값의 상위 5개 항목을 나타낸 표이다.

〈표Ⅳ-33〉 상위 5개의 설문 항목

항목	S-2	O-2	O-3	L-1	S-1
평균	3.76	3.76	3.74	3.70	3.68
표준편차	1.03	1.00	0.94	0.83	1.00

한편, NIE 수업을 통하여 기대되는 효과가 가장 낮은 항목으로는 응답 평균이 3.49로 나온 “G-4. 이 수업은 다양한 정보를 다양한 형태의 도표 등으로 효과적으로 발표하고 보여주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로 나타났다. 본 NIE 수업에서는 다른 항목에 비해 도해력의 네 번째 기능을 소홀히 다루었음이 드러났고, 이는 도해력과 발표력을 연결시킬 수 있는 학습 활동 개발이 부진했음을 나타낸다. 다음은 평균값의 하위 5개 항목을 나타낸 표이다.

〈표Ⅳ-34〉 하위 5개의 설문 항목

항목	G-4	G-2	L-7	G-3	L-5
평균	3.49	3.50	3.50	3.52	3.54
표준편차	1.00	1.02	1.02	1.05	1.03

본 연구에서의 의사소통 기능을 네 가지로 범주화하여 다시 각각의 의사소통 능력의 유형에 따른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분석 결과, 네 가지 의사소통 능력의 유형 중 사회적 기능의 평균값이 3.69로 가장 높게 나왔다. 이는 본 연구에서 설계된 NIE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사회적 기능에 해당하는 능력을 학습하는데 도움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네 가지 의사소통 기능의 유형 중 평균값이 가장 낮게 나온 도해력은 그 값이 3.54로 사회적 기능의 그것과 수치상으로는 큰 차이는 없지만, 다른 기능들과 비교하였을 때 수업의 효과성이 다소 저조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NIE 수업의 효과성이 높은 순서는 사회적 기능 > 구두표현력 > 문해력 > 도해력의 순이다. 이는 NIE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수업에서 제시된 신문 자료를 읽고 학습자들끼리 집단 토의 혹은 토론에 참여하여 그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말로써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표Ⅳ-35〉 의사소통 능력의 유형별 응답평균 및 표준편차

	문해력	구두표현력	도해력	사회적 기능
평균	3.62	3.67	3.54	3.69
표준편차	0.95	0.98	1.03	1.04

4. 성취도 평가 결과 분석

1) 문항별 분석 결과

NIE 수업 실시 후 실험 학생과 비 실험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된 성취도 평가를 각 문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Ⅳ-36〉 실험반과 비실험반의 성취도 평가 결과

	변인	평균	표준편차	통계치
문항 1	실험반	1.94	1.33	t값 = 5.55 p = .000
	비 실험반	1.28	1.11	
문항 2	실험반	1.74	.88	t값 = 3.19 P = .002
	비 실험반	1.43	1.1	
문항 3	실험반	1.63	.78	t값 = 1.43 p = .154
	비 실험반	1.51	.86	
문항 4	실험반	1.77	1.11	t값 = .977 p = .329
	비 실험반	1.66	1.23	

	변인	평균	표준편차	통계치
문항 5	실험반	.97	.80	$t_{값} = 1.572$
	비 실험반	.84	.92	$p = .117$
문항 6	실험반	.21	.62	$t_{값} = -3.690$
	비 실험반	.48	.85	$p = .000$
문항 7	실험반	.78	.98	$t_{값} = -3.514$
	비 실험반	1.12	.99	$p = .000$
문항 8	실험반	1.67	.95	$t_{값} = 3.332$
	비 실험반	1.35	.99	$p = .001$
문항 9	실험반	.99	.87	$t_{값} = 3.028$
	비 실험반	.72	1.01	$p = .003$
문항 10	실험반	1.85	1.07	$t_{값} = 2.956$
	비 실험반	1.11	1.25	$p = .003$
문항 11	실험반	1.01	.78	$t_{값} = 6.508$
	비 실험반	.54	.73	$p = .000$

1번 문항은 의사소통 능력 중 L-2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문항이다. 1번 문항의 L-2에 대한 실험반의 평균은 1.94로 비 실험반 즉, NIE 수업을 시행하지 않은 반의 평균 1.28보다 높게 나왔으며 그 값의 통계치는 $p = .000$ 으로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NIE 수업을 한 반이 L-2(글을 능동적으로 읽으면서 의미를 구성하기)에 있어서 더 높은 평가를 받았음이 확인되었다.

2번 문항은 의사소통 능력 중 L-5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문항이다. 2번 문항의 L-5에 대한 실험반의 평균은 1.74로 비 실험반 즉, NIE 수업을 시행하지 않은 반의 평균 1.43보다 높게 나왔으며 그 값의 통계치는 $p = .002$ 로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NIE 수업을 한 반이 L-5(증거나 논증을 이용하여 논리적인 글쓰기-설명적 글쓰기)에 있어서 더 높은 평가를 받았음이 확인되었다.

3번 문항은 의사소통 능력 중 L-4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문항이다. 2번 문항의 L-4에 대한 실험반의 평균은 1.63으로 비 실험반 즉, NIE 수업을 시행하지 않은 반의 평균 1.51보다 높게 나왔다. 하지만 그 값의 통계치는 $p = .154$ 로 유의한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즉, L-4(쓰기의 체계를 알고, 의미와 글자의 관계성을 파악하기)에 있어서 NIE 수업을 한 학생들이 더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하기에는 어려운 결과가 나왔다.

이는 문항 4와 문항 5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문항 4의 경우는 실험반의 평균이 1.77로 비 실험반의 1.66보다 분명 높게 나오기는 했지만, $p = .329$ 로 문항 4에 대한 두 집단의 평가 결과의 차이가 뚜렷이 드러나지 않았다. 그 결과, NIE 수업이 L-7(느끼고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창조적으로 글쓰기-상상적 글쓰기)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큰 영향은 주지 않은 것으로 말할 수 있다.

문항 5는 L-1(글자를 바르게 읽고 의미를 찾아내기)에 대한 평가로 실험반은 .97의 평균값이 나타났고, 비 실험반은 .84가 평균으로 실험반의 평가가 더 높게 나왔다. 하지만 통계분석 결과 $p = .117$ 로 두 집단 간의 큰 차이가 없음이 검증되었다.

문항 6의 경우는 도해력(Graphicacy)를 평가하기 위한 문제로 지도와 그래프를 해석하여 정보를 얻고 주어진 정보를 범주화하고 배열하여 의미를 구성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물었다. 즉 문항 6에서 평가하려고 한 의사소통 능력은 G-1(도표, 그래프, 다이어그램, 사진 및 지도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분석하기)과 G-3(자료를 범주화하고 논리적으로 배열하고 해석하기)으로 비 실험반의 평균이 실험반의 평균보다 높게 나왔다. 또한 문항 6은 모든 문항들의 평균값 중 가장 낮은 평균을 보이고 있다.

문항 7의 경우도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문항 6과 마찬가지로 문항 7도 도해력(Graphicacy)을 평가하기 위한 문항이며 G-2(주어진 정보를 다양한 형태의 도표와 지도 등으로 나타내기), G-4(다양한 정보를 다양한 형태의 도표 등으로 효과적으로 발표하고 보여주기)의 평가에 중점을 두었다. 이 문항에 대한 실험반과 비 실험반의 차이는 부적 상관을 보이는데 NIE 수업을 실시하지 않은 반의 학생들이 NIE 수업에 참가한 학생들보다 더 높은 점수를 얻었다. 즉, 도해력에 관한 NIE 수업의 효과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문항 8의 경우, S-1(자료를 논리적으로 배열하고 효과적으로 발표하기)과 S-2(집단토의와 같은 모둠활동에 참여하여 역할을 하기)에 해당하는 문항이다. 아마존 개발을 둘러싼 여러 자료들을 찬성과 반대라는 두 가지 범주에서 논리적으로 배열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보고 각 주장의 핵심을 찾아내게 하는 활동을 통해 지필 평가에서는 측정하기 어려운 모둠활동의 역할 활동에 대한 평가를 하고자 하였다. 이 문항에 대한 실험반의 평균은 1.67로 비 실험반의 평균 1.35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p = .001$ 로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문항 9는 L-6(의미를 구성하고 다양한 상징적 매체를 사용하여 표현하기-표현적 글쓰기)에 해당하는 문항으로 학생의 의견은 잠시 접어둔 채 브라질 농부의 입장에서 주어진 자료를 보고 의미를 구성하여 글로 표현해 보는 형태이다. NIE 수업을 실시한 반 학생들의 평균값은 .99이고 실시하지 않은 반의 평균은 .72로 실험반의 점수가 더 높게 나왔으며 p 값은 .003으로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하다고 검증되었다.

문항 10은 문항 9에 나타난 정보를 비판적으로 읽고 질문을 제기하고 문항 10에서 요구하는 관점으로 문항 9 정보의 쟁점을 평가하여 비판적으로 글을 써보는 활동이다. 즉, 의사소통 능력 중 L-8(정보의 종류에 따라 글과의 관계를 비판적으로 보고 쓴 글을 교환하기-비판적 글쓰기)과 S-3(질문을 제기하고 다른 관점으로 쟁점을 평가하기), L-3(글을 해석하고 비판하고 다른 사람과 그 결과를 교환하기)과 관련이 있다. 이 문항에 대한 실험반의 평균은 1.85이고 비 실험반의 1.11로 나타났으며 두 집단 간의 차이를 검증해본 결과 $p = .003$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이 확인되었다.

문항 11은 L-6(의미를 구성하고 다양한 상징적 매체를 사용하여 표현하기-표현적 글쓰기)과 S-4(에세이나 보고서를 작성하기)의 기능을 평가하기 위한 문항이다. 베네수엘라에서 온 또래의 편지에 답장을 쓰는 형식의 서술형으로 편지글과 같은 다양한 표현 방식의 구현과 작성하기의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였다. 이 문항에 대한 실험반의 평균은 .76이고 비 실험반은 .54의 평균이 나타나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함이 확인되었다.

각 문항별 실험반과 비 실험반 두 집단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난 문항과 그 문항에서 나타나는 의사소통 능력의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Ⅳ-37〉 두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문항과 의사소통 능력 항목

문항	문항 11	문항 1	문항 8	문항 2	문항 9	문항 10
항목	L-7, S-4	L-2	S-1, S-2	L-5	L-6	L-3, L-8, S-3

각 문항별 실험반과 비 실험반 두 집단의 차이가 검증되지 않은 문항과 그 문항에서 나타나는 의사소통 능력의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Ⅳ-38〉 두 집단에서 무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문항과 의사소통 능력 항목

문항	문항 6	문항 7	문항 5	문항 3	문항 2
항목	G-1, G-3	G-2, G-4	L-1	L-4	L-5

종합해보면 본 연구의 NIE 수업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관한 효과성에서 가장 높은 효과를 보인 의사소통 능력의 항목은 L-7 및 S-4, 그리고 L-2인 것이 확인되었다. 반면 수업의 효과성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은 의사소통 능력의 항목으로는 도해력 부분이었음이 검증되었다.

2) 종합적인 분석 결과

문항별 분석에 이어 성취도 평가 전체 문항에 대한 실험반과 비 실험반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Ⅳ-39〉 두 집단의 성취도 전체 문항 분석결과

	변인	평균	표준편차	통계치
문항 1	실험반	14.32	5.13	t값 =4.271 p=.000
	비 실험반	12.04	5.74	

NIE 수업을 실시한 반 학생들의 성취도 평가 평균은 14.32이고 NIE 수업을 실시하지 않은 반 학생들의 평가 결과 평균이 12.04로 실험반의 평균이 보다 높게 나온 것을 알 수 있다. 두 집단 간의 전체적인 차이 검증은 t값은 4.271, $p=.000$ 으로 차이가 유의함이 확인되었다. 즉, 성취도 평가 결과 NIE 수업이 학생들의 전반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준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제 5 장

•

결론

1. 요약

본 연구는 사회과 NIE 수업의 적합성을 밝히고 공교육 현장에서 의사소통 기능 향상에 신문을 활용하는 수업이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밝히기 위해 진행되었다. 의사소통 능력이란 개념은 학자들마다 집단마다 모두 다르게 정의내리고 있고 의사소통 능력에 들어갈 하위 기능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본 연구에서는 의사소통 능력의 하위 능력으로 읽고 쓰기의 “문해력”, 말하기의 “구두표현력”, 그래픽 정보 파악하기의 “도해력”과 타인과 커뮤니케이션하기의 “사회적 기능”까지 네 가지의 기능을 제시하고 있다.

총 2차시에 걸친 NIE 수업은 중학교 1학년 사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수업 내용은 라틴 아메리카의 지역 개발 문제와 인종 및 문화와 관련시켜 구성하였다. 수업을 설계할 때 수업 내용 및 절차를 고려하여 학생들이 최대한 다양한 의사소통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게 구성하였다. 이 NIE 수업은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실시되었고, 6개의 학교는 사회과의 진도 상황과 같은 각 학교 상황에 맞추어 유연하게 조정하여 수업을 실시하였다. 수업 실시 후 학생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면 지역별, 성별에 대한 응답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설문 조사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그 경향이 더욱 뚜렷해지는데, 서울 지역 소재 중학교의 학생들이 비 서울 지역 학생들보다 NIE 수업을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남학생에 비하여 여학생들이 NIE 수업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NIE 수업에 들어간 의사소통 능력의 여러 요소 중 학생들의 설문 조사 결과, 가장 효과성이 높았던 요소로 “O-2. 수업에서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는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하십니까?”와 “S-2. 이 수업이 집단토의와 같은 활동에 참여하여 역할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가 꼽혔다. 이는 의사소통 능력을 유형별로 범주화하여 살펴본 결과와 일치하는데, 유형별로도 가장 높은 효과성을 드러낸 것이 사회적 기능이고 그 뒤를 이어 구두표현력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인 수업의 형태가 수업 시간 중 학생들의 발언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NIE 수업에서는 말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말도 귀담아들으면서 자신의 견해를 피드백 하는 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에 비하여 NIE 수업을 통하여 가장 효과가 부진했던 부분은 설문 조사 개별 항목별로 보면 G-4. 이 수업은 다양한 정보를 다양한 형태의 도표 등으로 효과적으로 발표하고 보여주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로 나타났다. 이는 의사소통 능력의 유형별 범주 분석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는데, 의사소통 능력의 하위 능력 중 도해력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NIE 수업이 별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응답했기 때문이다. 도해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그래픽 정보는 분명 수업에서 주어졌지만 정보의 대부분이 학생들의 동기 유발을 위하여 도입 부분에서 제시된 데 그치고 다양하고 풍성한 그래픽 정보를 활용하지 못한 점이 아쉽게 드러났다.

의사소통 능력을 NIE 수업의 효과성이 높은 순서대로 나열해보면 사회적 기능, 구두표현력, 문해력, 도해력의 순이다. 이는 본 연구에서 설계된 NIE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수업에서 제시된 신문 자료를 읽고 학습자들끼리 집단 토의 혹은 토론에 참여하여 그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생각하는 바를 말로써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성취도 평가의 분석 결과는 NIE 수업이 L-7. 느끼고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창조적으로 글쓰기(상상적 글쓰기) 및 S-4. 에세이나 보고서를 작성하기, 그리고 L-2. 글을 능동적으로 읽으면서 의미를 구성하기에 해당하는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수업의 효과성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은 의사소통 능력의 항목으로는 도해력 부분이었음이 검증되었다. 이는 신문 기사를 활용한 학습 자료가 제공되는 NIE 수업의 특성상 학생들이 텍스트 위주로 학습한 결과이다. 이러한 수업의 한계 극복을 위하여 사진 및 지도 등 학습 자료를 제공하였지만, 도해력 부분의 향상이 다른 의사소통 능력의 항목보다는 그 효과성이 다소 낮은 결과가 나왔다.

2. 제언

세계적으로 읽기와 쓰기의 중요성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다. 미국은 '신문이 곧 교재'라는 인식 아래 초등학교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평생 교육 차원에서 다양한 NIE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고등학교와 대학교 교재로 파이낸셜타임스 섹션 신문인 'Student guide'를 그대로 활용하기도 한다. 프랑스는 정부가 NIE를 주도하며 유치원 때부터 신문 읽기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문자·활자문화진흥법'을 제정해 젊은 층의 읽고 쓰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주력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 정책과 각종 입시 제도는 독서와 논술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읽기와 쓰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읽고 쓰는 훈련은 벼락치기로 얻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꾸준히 훈련해야 비로소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종합적인 사고력을 키우려면 의사소통과 의사 결정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데 중점을 뒀야 한다. 여기에 균형 잡힌 시각과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사회적인 기능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신문활용교육은 공교육의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겠다. 배경 지식이 충분하고 논점이 다양하며 논리적인 문장의 보고인 신문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써보는 활동까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신문을 교육 현장에서 교재로 활용하려는 것은 사회과 교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방법 중 하나이다. 학생들은 스스로 신문을 읽는 과정에서 신문과 친숙해지고 교재와 관련이 있거나 특정 주제와 테마에 관한 자료를

주체적으로 정선, 분석, 해석, 종합하는 등의 정보 처리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또 이러한 정보를 타인과 소통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도 기를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에 관한 연구는 앞으로 교사들의 노력 여하에도 달려 있지만 이를 위한 전문가들의 이론적 기초 연구가 더욱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신문을 활용하여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의사소통 능력이란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와 같은 문제부터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학습 활동 및 신문 자료의 선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 것인지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실험 수업을 통하여 다양한 검증의 과정이 필요하다. 현장 교실 수업은 수업 전에는 통제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이 연출되는 공간으로 아무리 이론적으로 훌륭한 수업 지도안과 학습 자료가 준비되어 있어도 수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많은 실험 수업을 실시하여 수업을 검증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셋째, 다양한 형태의 NIE 수업 효과에 대한 보다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다. 흔히 볼 수 있는 교육과정에 근거한 NIE 수업뿐만 아니라 신문 자체만으로 학습을 진행시키는 계기 수업의 형태에 이르기까지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여 수업에 피드백해야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순자(2007). “신문활용 탐구공동체 교육활동을 통한 일반 중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 변화 연구”, 특수아동교육연구 9권 1호, 한국특수아동학회
- 김재영(2007). “신문, 방송을 활용한 한자, 한자어 교수-학습 방법”, 한자한문교육 18권,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 김재휴(2002). 「NIE 학습이 사회과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효희(2007). 「지리과에서 신문포트폴리오를 통한 자기주도학습의 효과성 - 고등학교 환경과 자연재해 단원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지리교육전공
- 박선미, 김혜숙, 이의한(2003).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교급별 도해력 발달 수준 분석”, 대한지리학회지 44권 3호
- 서신자(1997). 「NIE를 통한 민주 시민 자질의 함양」, 《교육 경북》
- 이성은(2003). “활동중심 초등국어 교수법”, 이화교육총서 3호, 이화여자대학
- 정문성(1996). “사회과 협동학습의 유형과 실제”, 사회과교육 제29호, 한국사회과교육연구회
- 정문성 · 구정화 · 박미영(2004). 『학교 NIE 알아보기-학교 NIE 실태와 개선방안』, 한국신문협회
- 정문성 · 구정화(2005). 『학교 NIE 알아보기-학생 NIE 실태와 개선방안』, 한국신문협회
- 최상희(2009). 『고등학교 사회과 수업에서 신문자료의 구성주의적 재구성』,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홍영희(2005). 「신문활용수업을 통한 경제 교육 효과 연구: 고2 기업 문화 단원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부록〉 읽기 자료 1-1

아마존의 복수 · 북극의 경고

〔한국일보〕 2009-03-07 10면 총 42면 국제 · 외신 1,160자

지구가 인간의 욕심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지구의 허파인 아마존이 무차별적인 벌목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의 주범으로 바뀌었고 온난화로 신음하는 북극에서는 여름철 해빙이 5년 내에 사라질 것으로 전망됐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과학잡지 사이언스 최신호에 실린 보고서를 인용, 6일 ‘열대우림의 복수가 시작됐다.’는 기사를 통해 아마존 열대우림의 파괴를 경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전체 산소 공급량의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아마존에서는 고사 나무가 늘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이산화탄소 흡수량보다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마존은 난개발에 따른 무분별한 벌목으로 신음하다가 2005년 극심한 가뭄이 겹친 뒤 연간 30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선 조사에서 아마존은 매년 20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연구를 이끈 영국 리즈 대학의 올리버 필립스 교수는 “아마존의 면적을 고려할 때, 아마존의 생태에 작은 변화가 발생하면 지구 전체에 엄청난 충격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레인포(RAINFOR)는 아마존의 생태를 연구하는 13개국의 과학자 68명이 조직한 국제 연구단체로 이번 연구를 위해 아마존에 100곳의 표본 연구 지점을 설치하고 10만 그루 이상의 나무를 조사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북극권의 온도가 너무도 빨리 올라가 예상보다 수십 년 빠른 2013년이면 여름철 해빙이 사라질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캐나다 라발대학 북극연구소의 위릭 빈센트 소장은 5일 의회 발표를 통해 “우리 연구진은 지난 10년 동안 북극해의 워드헌트섬에서 여름철을 보냈는데 최근 얼음 없는 바다가 그 어느 때보다 넓게 펼쳐져 있다.”면서 “여름철 북극 해빙이 완전히 사라지는 시기는 2013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워드헌트섬의 여름철 평균 최고기온은 5도였으나 지난해 여름에는 무려 20도에 이르렀으며 캐나다 북단 엘스미어섬에서만도 4,000년 이상 된 빙봉 5개의 면적이 23%나 줄어들었다.

전문가들은 2004년까지만 해도 북극 해빙이 사라지는 시기를 2100년으로 예측했으나 지난 해 말 일부 연구진들은 앞으로 10~20년 안에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관규 기자 qoo77@hk.co.kr

〈부록〉 읽기 자료 1-2

볼리비아 “석유·가스 부문 50억 弗 투자”

[연합뉴스] 2009-07-22

5년 내 가스 생산량 2배 확대 목표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 볼리비아 정부는 21일 석유 및 천연가스 유전 개발을 위해 향후 5년간 모두 5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스카르 코카 에너지부 장관은 이날 중부 코차밤바에서 열린 국영에너지회사 YPFB의 천연가스 배급회사인 ‘YPFB 가스’ 개소식에 참석, “지난 2006년 국유화된 에너지 부문의 생산성 확대를 위해 기존의 투자 계획을 합쳐 50억 달러에 달하는 파격적인 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은 올해 초 YPFB의 에너지 생산, 석유·천연가스 수송관 건설 등을 위해 10억 달러에 이르는 투자 계획을 밝혔으며, 이어 지난 10일에는 아마존 유전 사업을 위해 8억 달러 규모의 투자 방침을 발표했다.

아마존 유전 사업은 YPFB와 민간 에너지 기업 GTLI가 공동으로 수도 라파스 북부 아마존 지역의 유전을 개발한다는 것으로, 이 사업은 그동안 아마존 환경파괴 가능성 등을 이유로 논란을 빚다 최근 의회를 통과했다.

아마존 유전 개발을 통해 현재 연간 4천만㎥인 천연가스 생산량과 하루평균 4만 배럴 수준의 석유 생산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은 2006년 초 집권 이래 에너지, 광물, 통신 등 주요 산업을 국유화했다.

볼리비아는 남미 지역에서 베네수엘라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천연가스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 천연가스 생산량의 3분의 2는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로 수출되면서 볼리비아의 최대 외화 수입원이 되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볼리비아의 천연가스 연간 수출액은 31억 3천200만 달러를 기록해 전체 수출액 68억 3천 600만 달러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fidelis21c@yna.co.kr

〈부록〉 읽기 자료 1-3

브라질 “선진국, 아마존 보호비용 내야”

[내일신문] 2009-04-20 08면 1,106자

지구 상에 남은 마지막 자연의 보루라는 아마존을 보호하기 위해 선진국과 다국적 기업이 이곳에 보호기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IPS 등 현지 언론이 최근 보도했다. 아마존 밀림자원의 훼손을 막아 기후변화에 완충 역할을 하도록 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브라질은 지난 수년간 천연자원은 줄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늘어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아마존 밀림이 대거 농지로 개발되면서다. 손쉽게 농지를 개발하기 위해 아마존에 놓아지고 있는 불이 주범이다. 해마다 엄청난 밀림자원이 재로 변하면서 브라질 전체 온실가스의 48%가 아마존 밀림에서 나온다. 브라질은 세계 4번째 온실가스 배출 국가다. 현지 언론은 “지난 수년간 꾸준히 계속된 농지개발로 아마존의 37%가 벌목되거나 불에 타 훼손됐다.”고 전했다.

아마존에 경제적 가치를 정해 보호기금을 내자는 주장은 이런 배경에서 나오고 있다. 밀림에서의 농지개발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려면 아마존 주민들에게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지 언론은 “아마존 주민들에게 ‘환경보호 서비스’의 대가를 받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브라질에선 민·관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정부가 ‘글로벌 책임

론'을 들어 이미 이 같은 제안을 한 데 이어 민간단체들도 국제사회와 다국적 기업에 아마존 보호비용을 내도록 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민간단체인 '아마존 지탱' 재단은 최근 열린 '아마존 보호에 대한 토론회'에서 "밀림자원에 시장원칙에 따라 가격을 정하고 국제사회가 이를 지불하는 방안 외에는 아마존을 무분별한 개발에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재단 관계자는 "아마존 밀림이 사라진다면 당장 지구 곳곳에 가뭄이 발생, 농업이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며 "아마존에 분명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만큼 이를 지키기 위한 글로벌 책임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는 "밀림을 농지로 개발하는 아마존 주민들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라며 "이들이 농사를 포기한다면 응당한 대가를 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임석훈 통신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저작권자 © 내일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부록〉 읽기 자료 1-4

“아마존 개발” “터전 사수” 페루 정부—원주민 충돌 유혈사태…해법 찾기 고심

〔국민일보〕 2009-06-12 08면 총 05면 국제·외신 933자

페루 의회는 아마존 정글 개발을 둘러싼 유혈 충돌의 원인이 된 아마존 정글 개발법 2건에 대해 90일간의 효력정지를 의결했다고 AFP통신이 11일 보도했다. 페루 의회의 조치는 원주민과 페루 정부가 정글 개발을 둘러싸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지난주 페루 경찰이 북부 우트쿠밤바주(州)에서 정글 개발에 반대해 점거 농성을 벌이던 수천 명의 원주민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유혈 충돌이 발생, 60여 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에 소수종족 보호단체 '서바이벌 인터내셔널'은 '아마존의 험안먼 사태'라고 규정하고 페루 정부를 맹비난했다.

원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페루 정부군은 정글 지역에 야간 통행금지 명령을 내리고 최루가스와 총으로 원주민을 진압하고 있다. 정부군은 심지어 사망자를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태우거나 몰래 매장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가 전했다. 니카라과는 페루 정부의 수배령이 내려진 인디언 지도자 알베르토 피산고의 망명 신청을 승인했다.

이번 사태는 알란 가르시아 페루 대통령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위해 내놓은 아마존 개발법이 기폭제가 됐다. 외국자본을 유치해 정글 지역의 광산과 삼림을 개발하고 원유를 탐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마존 원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했다. 프랑스와 스페인, 미국 등 외국기업의 밀림지대 진출이 구체화되면서 원주민들은 지난 4월부터 도로와 송유관을 점거하기 시작했다.

원주민들은 “지난 25년간 정부에 토지점유권을 달라고 간청했지만, 고작 2km²의 땅을 등록하는 데 성공했을 뿐”이라며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가르시아 대통령은 “아마존 밀림에 있는 원유 가스 등의 자원은 소수 원주민만의 것이 아닌 전 국민의 것”이라는 논리로 개발법을 옹호하고 있다.

한승주 기자 sjhan@kmib.co.kr

〈부록〉 읽기 자료 1-5

브라질 학계·농업계 절충안 대두 / 아마존 ‘생화학 자원 이용’ 新 개발론

[한국일보] 2005-04-16 14면 총 42면 국제·외신 1,317자

아마존의 삼림을 ‘생화학의 보고’로 적극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브라질 학계와 농업계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최신회(18일 자)에서 “과학기술을 활용해 아마존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난 10년간 환경론자들에 의해 저지돼 왔지만 아마존의 열대우림은 계속 훼손돼 왔으며 주민들의 삶도 갈수록 피폐해졌다.”며 “이제는 대안을 찾아 실행에 옮길 때”라고 보도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무분별한 아마존 개발을 막기 위해 법과 공권력 등이 동원됐지만 최근 들어 훼손되는 아마존 삼림의 면적은 오히려 90년대 초반의 2배에 달했다. “당신들의 땅인 아마존을 지켜주겠다.”는 브라질

정부의 말을 믿고 버텨온 2,000만 명의 원주민을 비롯이라도 하듯 외지의 목축업자와 삼림업자들은 더욱 빠른 속도로 나무를 베고 불을 질렀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삼림 훼손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최대한의 경제적 부를 창출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생물자원 탐사는 이런 점에서 개발론과 환경론 간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아마존에는 4,621가지에 달하는 약초가 번식하고 있다. 이 중에는 당뇨 천식 포도구균 등을 치료할 수 있는 획기적인 의학적 가치를 지닌 것들도 적지 않다. 아마존의 풍부한 식물 자원으로부터 소량을 뽑아내 의학적으로 이용한다면 삼림훼손을 크게 줄이면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목축과 삼림업에도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덜 자란 풀을 관리하고 인공수정을 통해 가축들의 출생률을 높이는 한편 가축이 한곳에 오래 머물지 않고 순환하도록 하는 등 통계·생물학적 기술을 이용한다면 과거보다 훨씬 더 큰 경제적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브라질 정부가 매년 15만 4,000달러라는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도 삼림보존을 위한 기술개발이 가능해 매년 2,000만 헥타르의 삼림을 보존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 이런 노력이 지속된다면 훼손된 뒤 회생불능으로 여겨졌던 삼림도 25~30년 후에 복원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개발론자들은 “무엇보다 아마존 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브라질 정부의 인식 전환이 필수적”이라며 “이와 함께 무조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각종 개발제한 조치들도 재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k.co.kr

〈부록〉 읽기 자료 1-6

아마존의 명칭 유래

코카서스에 스키타이 지방에 걸쳐 아마존이라 불리는 여 무사족이 살고 있었다. 그녀들은 아레스와 하르모니아의 자손으로 아레스 및 아르테미스를 신앙의 상징으로 삼고 한 사람의 여왕을 받들었다. 무용에 뛰어나고 초승달 모양의 방패와 활, 도끼, 창 등으로 싸웠으며 말 타기에도 능했다. 여성만으로 이루어진 종족이기 때문에 자손을 남기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다른 나라의 남성으로부터 종자를 받았으며, 사내아이가 태어날 경우 죽이거나 불구를 만들기도 했다. 계집아이일 경우에는 어릴 때 오른쪽 젖가슴을 도려내어 활이나 창을 다루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 했다.

그리스의 전설적 영웅들도 이 아마존과 교섭을 가졌다. 이를테면 헤라클레스는 열두 가지 고행의 하나로써 아마존의 여왕 휴포리테의 허리띠를 빼앗기도 했다.

테세우스는 휴포리테의 누이 또는 딸이라고 하는 안페티오를 약탈했다. 이것이 원인이 되어 트로이 전쟁 때 아마존 측은 트로이를 편들어 아티카에 쳐들어왔으나, 그리스 제일의 영웅 아킬레스에 의하여 격파당했다. 이때 아킬레스는 여왕 펜테실레아를 죽였는데, 죽인 직후 그녀의 아름다움에 비탄했다. 그리스인 테르시테스는 비웃으며, 아킬레스는 송장을 사랑한다고 소문을 퍼뜨렸기 때문에 아킬레스에게 맞아 죽었다. 독일의 근세 극작가 클라이스트는 이것을 테마로 하여 희곡 《펜테실레아》를 썼다.

이러한 내력으로 해서 아마존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용감한 여자, 여걸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물론 다소 비꼬아 말하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여인국에 관한 전설은 그리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인도, 아라비아 등에도 있다. 이러한 전설이 발생한 근거에 대해선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는데, 여성에 대한 남성의 동경과 외포의 심리가 작용했을 것이다.

그리고 남미에 있는 세계 최대의 강 아마존의 명칭도 아마존의 전설에서 나온 것이다. 유럽인이 이 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천오백 년 스페인 사라마 핀존이 처음으로 아마존 하구를 탐험했을 때부터이다. 그 후 얼마 안 되어 스페인 사람 피사로는 페루 지방에 번영하던 잉카 제국을 멸망시킨 다음 전설적인 황금의 나라 엘도라도를 발견할 목적으로 자기 아우를 지휘관으로 하는 탐험대를 안데스 산맥 저편에 보냈다. 일행은 아마존 강의 상류 나포하반까지 도달했으나, 식량 부족과 피로로 말미암아 행군을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으므로 부대장 오렐라나를 시켜 소대를 이끌고 아마존 강을 따라 내려가게 했다.

오렐라나의 소대는 도중에서 여성만으로 된 원주민들의 공격을 받아가며 전진을 계속했다. 그러나 엘도라도를 발견할 수는 없었다. 결국 그들이 여인군의 공격을 받았다고 해서 그 강에 아마존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것이 이 탐험 여행의 유일한 수확이었다.

출처 : 휘닉스 기획편집팀 편저, 2004. “유식의 즐거움 2. 서양 지식의 모든 것” pp. 172-173

〈부록〉 읽기 자료 2-1

“南美 식민지화 과정서 유전자 지도 격변”〈BBC〉

[연합뉴스] 2008-03-22

유럽 정복자들의 남미 식민지 과정에서 현지 원주민 여성들과 결혼함으로써 유전자 지도에 큰 변화가 있었던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됐다고 영국의 BBC가 21일 인터넷판에서 보도했다.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안드레스 루이스-리나레스 박사를 중심으로 하는 연구팀은 한 학술지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쪽으로 멕시코에서 남쪽으로 칠레까지 7개국에서 혼혈(메스티소) 13개 부족의 249명을 조사한 결과, 정복자들과 피지배자들 사이의 유전자 결합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여성을 동반하지 않고 남미 대륙에 도착한 유럽 남성들은 원주민 여성 혹은 아프리카 출신 여성들과 결혼 등으로 성관계를 가지면서 유럽인 유전자의 세력을 넓혀갔으며 원주민 남성들을 학살했을 것이라는 흔적도 발견됐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그러나 유럽 정복자들이 도착한 15세기 말 당시 멕시코시티, 안데스 산맥의 고원지대 등에서는 이미 원주민들이 일정 수준의 문화를 갖고 상대적으로 원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유럽 남성들의 세력에 밀리지 않아 “아직까지도 유전자적 유산이 보존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원주민 밀집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혼혈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루이스-리나레스 박사는 “유럽 정복자들은 남미대륙에서 땅과 재산뿐만 아니라 현지여성들도 약탈했으며 원주민 남성들을 학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이번 연구는 질병 연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류종권 특파원 rjk@yna.co.kr

〈부록〉 읽기 자료 2-2

[박정은의 길에서 만난 사람]
찬란했던 아스텍 문명 아래 ‘하나 되기’ 몸부림
멕시코시티-정체성에 대한 고민

[세계일보] 2008-12-15

멕시코는 어떤 점에서 이상한 곳이었다. 멕시코시티 근처에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아스텍문명을 간직한 죽어 있는 테오티우아칸(Teotihuacan)이 있고, 멕시코시티에는 스페인 식민지 시대의 건물과 혼혈 후손들이 생활하는 스모그 가득한 메트로폴리탄이 있다. 멕시코에 정착한 사람들은 오래전 아시아에서 북아메리카를 통해 넘어와 중남미 땅에 정착한 인디오로 아시아계다. 이들이 이룩한 아스텍문명은 에스파냐인의 침입으로 1521년에 멸망했다. 이후 약 300년간 스페인 식민지 시대가 계속되는 동안 스페인어와 가톨릭이 전파되면서 매우 빠른 속도로 스페인과의 혼혈이 진행됐다. 그래서 현재의 인종 구성은 백인과 인디오의 혼혈인 메스티소가 약 60%, 30%의 인디오, 9%가 백인이다.

한국의 일제강점기를 상상해보면 쉽겠다. 일제 시절 우리는 일본어를 사용해야 했고, 황국신민으로 일왕을 모셔야 했다. 더 나아가 만약 그 제국주의 국가가 일본이 아니라 미국이나 스페인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오랜 식민지 생활로 더 이상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없어지고 종교 역시 달라지고, 그리고 강력한 혼혈정책이 성공해 버린다면?

대부분을 차지하는 메스티소 국민에게 자신의 정체성은 뭘까? 아스테카문명을 멸망시킨 침략자 스페인인과 인디오 사이에서 태어난 선조를 두고 있는 사람들. 이들에게 에스파냐인은 적일까, 조상일까?

이런 궁금증에 빠져 있던 필자에게 중남미 문화를 공부하는 친구가 인류학박물관(Museo Nacional de Antropologia)을 추천했다. 인류학박물관은 멕시코의 인류학을 체계화해 정리해놓은 곳으로 1층은 원시시대부터 고대, 중세까지 유물을 모아 놓은 12개 전시실이 있고, 2층은 현재의 멕시코 전역의 각 부족들의 문화(복식, 음식, 음악, 장례문화)를 마네킹을 이용해 잘 꾸며 놓은 거대한 건물이다.

1층을 돌아보고 있는데 자꾸 한 사람과 마주치게 된다. 서로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며 눈인사만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말을 걸어들었다. “Excuse me(실례합니다)” 놀랍게도 영어다! 대부분의 멕시코 사람들은 영어를 거의 못했다. 당시는 스페인어를 배우기 전이라 필자의 입은 한동안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저 먹는 기능만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영어를 하는 사람을 만나니 기쁜 마음에 그동안 쌓였던 질문이 마구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나이가 지긋한 여성은 대학원에서 역사학을 공부하고 있다고 했다. 이름은 오마르(Omar), 멕시코에 온 호기심 많은 여행자를 만족시키기 위해 딱 적당하신 분이 다.

“그래요, 우리의 선조는 인디오죠. 저 역시 가톨릭을 믿고 제 피부는 인디오와 다른 흰색이에요. 스페인 계통이죠. 그렇다고 제 나라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전 멕시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우리나라 역시 이런 문제(정체성)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1964년 세계에서 손꼽히는 인류학박물관을 짓게 된 거예요.”

과연 그랬다. 인류학박물관에는 선조의 우수성과 뛰어난 미적 감각, 이들의 뿌리에 대해 자랑스러울 만큼 매우 상세히 정리돼 있다. 그리고 현재 멕시코 내 인디오 각 부족의 문화와 생활상을 다섯 살 어린이도 쉽게 알도록 잘 꾸며 두었다. 이들의 노력이 머나먼 한국에서 온 필자에게까지 감동적으로 전해졌으니까.

우리의 이야기는 식당에서도 이어졌다. “멕시코 국민은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되는데, 그렇다면 멕시코 내에서 인종차별은 없나요?” 그녀는 대답했다. “오, 미안하게도 있어요. 저 역시 스페인 혈통이지만, 식민지 시대와 마찬가지로 스페인 혈통의 사람들이 이 나라 권력을 대부분 가지고 있죠. 경제적인 부도 마찬가지고요. 이는 식민지 시대부터 내려온 거예요. 물론 바뀌어야 하고, 많은 사람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녀의 말은 이후 중남미 여행에서도 종종 느낄 수 있었다. 사회주의 국가인 쿠바에서조차 “나는 니그로(흑인)가 싫어요. 내 핏줄은 스페인인이에요.”라고 우쭐해 하며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인류학박물관의 마지막 전시관에는 인디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시실이 마련돼 있었다.

국가의 박물관은 이미 사라져버린 문명이나 죽은 시대에 대한 유물을 보여주는 곳이 아니다. 그 나라 국민에게 정체성을 만들어주는 곳이다. 뿌리가 있어야 나무가 있고 잎이 나고 꽃이 핀다. 역사도 과거가 있어야 현재가 있고, 또 미래가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과 세계의 역사 또한 마찬가지다.



태양의 신전에서 바라본
테오티우아칸의 모습



멕시코 시티의 소칼로 광장.
매일 인디오의 전통 춤이 펼쳐진다.



〈부록〉 설문조사_학생용

()중학교 ()학년 ()반 이름()

* 다음은 NIE 수업에 대한 설문 문항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 표시하세요.

1. 이 수업은 글자를 바르게 읽고 의미를 찾아내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 글을 능동적으로 읽으면서 의미를 구성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3. 글을 해석하고 비판하고 다른 사람과 그 결과를 교환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4. 글의 의미와 글자의 관계성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5. 증거나 논증을 이용하는 논리적인 글쓰기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6. 이 수업은 의미를 구성하고 다양한 상징적 매체를 사용하여 표현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7. 느끼고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창조적인 글쓰기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8. 이 수업을 듣고 정보의 종류에 따라 글과의 관계를 비판적으로 보고 쓴 글을 교환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9. 이 수업이 자신의 느낌과 생각, 아이디어를 언어로 표현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0. 이 수업에서 중요하고 의미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는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1. 이 수업은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말하는가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2. 이 수업이 자신의 표현을 반성적으로 평가하고 수정하는 기회를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3. 이 수업이 도표, 그래프, 사진등과 지도의 정보를 파악하고 분석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4. 이 수업이 주어진 정보를 다양한 형태의 도표와 지도 등으로 나타내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5. 이 수업이 자료를 범주화하고 논리적으로 배열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6. 이 수업은 다양한 정보를 다양한 형태의 도표 등으로 효과적으로 발표하고 보여주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7. 이 수업은 자료를 논리적으로 배열하고 효과적으로 발표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8. 이 수업이 집단토의와 같은 활동에 참여하여 역할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9. 이 수업은 질문을 제기하고 다른 관점으로 쟁점을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 이 수업은 에세이나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길러주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부록〉 성취도 평가

○ 다음 글을 읽고, 아래의 질문에 답하십시오.

A. 아마존 유전 사업은 YPF와 민간 에너지 기업 GTL이 공동으로 수도 라파스 북부 아마존 지역의 유전을 개발한다는 것으로, 이 사업은 그동안 아마존 환경파괴 가능성 등을 이유로 논란을 빚다 최근 의회를 통과했다.

아마존 유전 개발을 통해 현재 연간 4천만㎥인 천연가스 생산량과 하루평균 4만 배럴 수준의 석유 생산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B. 지난주 페루 경찰이 북부 우트쿠밤바주(州)에서 정글 개발에 반대해 점거 농성을 벌이던 수천 명의 원주민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유혈 충돌이 발생, 60여 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원주민들은 “지난 25년간 정부에 토지점유권을 달라고 간청했지만, 고작 2km²의 땅을 등록하는 데 성공했을 뿐”이라며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C. 지구가 인간의 욕심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지구의 허파인 아마존이 무차별적인 벌목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의 주범으로 바뀌었고 온난화로 신음하는 북극에서는 여름철 해빙이 5년 내에 사라질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전체 산소 공급량의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아마존에서는 고사 나무가 늘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이산화탄소 흡수량보다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마존은 난개발에 따른 무분별한 벌목으로 신음하다가 2005년 극심한 가뭄이 겹친 뒤 연간 30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선 조사에서 아마존은 매년 20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1. 개발을 찬성하는 입장과 보전을 찬성하는 입장으로 나누어 보고, 두 입장이 주장하는 바의 차이점을 정리해보자.

· 개발을 찬성하는 입장 : _____

· 개발을 반대하는 입장: _____

2. 아마존 강 유역 개발 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보자.

○ 다음 글을 읽고, 괄호 안에 들어갈 접속사로 알맞은 것은?

원주민들은 “지난 25년간 정부에 토지점유권을 달라고 간청했지만, 고작 2km²의 땅을 등록하는 데 성공했을 뿐”이라며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 가르시아 대통령은 “아마존 밀림에 있는 원유 가스 등의 자원은 소수 원주민만의 것이 아닌 전 국민의 것”이라는 논리로 개발법을 옹호하고 있다.

- ① 그리고 ② 그러나 ③ 따라서 ④ 그러므로 ⑤ 그래서

○ 다음 글을 읽고, 만약 우리나라도 라틴 아메리카의 경우와 같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지 상상하여 인종과 생활모습, 종교 등의 측면에서 이야기해보자. (세 줄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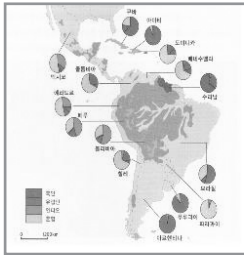
멕시코에 정착한 사람들은 오래전 아시아에서 북아메리카를 통해 넘어와 중남미 땅에 정착한 인디오로 아시아계다. 이들이 이룩한 아스텍문명은 에스파냐인의 침입으로 1521년에 멸망했다. 이후 약 300년간 스페인 식민지 시대가 계속되는 동안 스페인어와 가톨릭이 전파되면서 매우 빠른 속도로 스페인과의 혼혈이 진행됐다. 그래서 현재의 인종 구성은 백인과 인디오의 혼혈인 메스티소가 약 60%, 30%의 인디오, 9%가 백인이다.

○ 다음 글을 읽고, 라틴 아메리카에서 혼혈 인종이 많이 나타나는 이유를 쓰시오.

여성을 동반하지 않고 남미 대륙에 도착한 유럽 남성들은 원주민 여성 혹은 아프리카 출신 여성들과 결혼 등으로 성관계를 가지면서 유럽인 유전자의 세력을 넓혀갔으며 원주민 남성들을 학살했을 것이라는 흔적도 발견됐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그러나 유럽 정복자들이 도착한 15세기 말 당시 멕시코시티, 안데스 산맥의 고원지대 등에서는 이미 원주민들이 일정 수준의 문화를 갖고 상대적으로 원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유럽 남성들의 세력에 밀리지 않아 “아직까지도 유전자적 유산이 보전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원주민 밀집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혼혈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다음의 라틴 아메리카 인종 분포도를 보고 분석한 내용을 옳지 않은 것은? ()



- ① 라틴 아메리카의 원주민인 인디오는 주로 안데스 산지에 분포한다.
- ② 흑인 인구의 분포는 라틴 아메리카의 동쪽면에 주로 분포한다.
- ③ 브라질에 분포하는 혼혈 인구의 대부분 메스티소이다.
- ④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등의 국가는 백인의 비중이 높다.
- ⑤ 수리남의 혼혈인구는 물라토가 주를 이룬다.

○ 세계 최대의 열대 밀림 지역으로 최근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심각한 환경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지역은?



-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 다음은 아마존 강 유역 개발을 둘러싼 각 입장들의 의견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 A. 벌목업자: 아마존 지역의 열대림을 개발하여 목재를 수출하면, 브라질은 많은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을 것이다.
- B. 원주민: 우리는 백인들이 들어오기 이전부터 이곳에 살아왔다. 우리는 우리의 땅을 그대로 지키고자 한다.
- C. 브라질 정부 관계자: 아마존 강 유역은 그 정도 산림을 베어 내어도 큰 문제가 없다. 브라질은 토지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 D. 국제 환경 단체: 산소 공급지인 열대림을 계속 베어 내면, 생태계가 파괴되어 지구 전체의 문제가 된다. 그러므로 아마존 강 유역의 개발은 멈추어야 한다.

1. 개발에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을 나누어 보고 각 입장들의 핵심적인 주장을 써보시오.

- 개발을 찬성하는 입장 ()
- 개발을 반대하는 입장 ()

2. 다음은 브라질의 한 농부를 인터뷰한 내용이다. 인터뷰 내용을 읽고, 아마존 강 유역 개발 문제에 대하여 브라질 농부의 입장에서 이야기해보자.



“... 브라질의 토지는 몇몇 소수의 대 지주들에 의해 독점되다시피 한 상태예요. 이로 인해 대다수의 가난한 농민들은 농촌을 떠나 도시의 빈민으로 전락했죠. 아마존의 산림을 농경지로 개간하여 농민들에게 배분된다면 우리에게도 희망이 생길 것이예요...”

3. 자신이 D. 국제 환경 단체의 회원이라고 가정하여 앞의 브라질 농민의 인터뷰 내용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해보자.

○ 베네수엘라에 사는 산체스에게 온 편지를 읽고 산체스에게 답장을 해보자.

안녕? 나는 베네수엘라의 수도인 카라카스에서 사는 산체스라고 해. 혹시 베네수엘라라는 나라를 들어봤니? 우리나라는 라틴 아메리카의 북쪽에 위치해있어서, 카리브 해와 맞닿아있고 그 연안에 매장된 석유도 풍부한 국가지.

아침 내 소개를 할게. 나는 14살이고, 내게는 비나라는 여동생이 있어. 우리 엄마는 백인이고 아빠는 인디 오시지. 비나는 커서 미인대회에 나갈 거라고 해. 미인대회는 베네수엘라 출신들이 많구나? 나랑 가장 친한 친구인 엔리케는 곧 스페인으로 유학을 간대. 스페인이랑 우리는 쓰는 말도 같고, 게다가 엔리케네 부모님도 원래 스페인 사람이라 엔리케 녀석 요즘 기대에 부풀어 있어.

오늘은 일요일~ 성당에 가는 날이었지. 나랑 우리 가족 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 대부분이 함께 성당에 다닌단다. 미사가 끝나고 아레빠라고 하는 음식으로 점심을 먹었어. 아레빠는 옥수수 가루로 구워서 만든 빵 비슷한 음식으로 우리나라의 주식이지. 여기 사진도 넣었어.

너에게 궁금한 게 참 많아.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뭐니? 성당은 다니니? 한국이라는 나라도 동아시아에 있는 나라라는 것밖에 잘 모르겠네.

네가 많이 알려줘. 너의 답장을 기다릴게.



2009. 11. 26.

카라카스에서 산체스가

〈부록〉 성취도 평가 정답

〈성취도 평가 채점표〉

문항	배점	정답
1	5점	· 개발을 찬성하는 입장: A (1점)/ 아마존 유전과 같은 아마존의 개발은 그 지역의 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 (1점)
		· 개발을 반대하는 입장: B, C (1점)/ 아마존의 개발은 아마존에 거주하는 원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 아마존의 개발은 지구 환경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각각 1점씩 2점)
2	3점	· 아마존 개발에 대한 찬반을 밝히고 근거를 2개 이상 썼다. (3점)
		· 아마존 개발에 대한 찬반을 밝히고 근거를 1개 썼다. (2점)
		· 아마존 개발에 대한 찬반의 의사를 밝혔다. (1점)
3	2점	② 그러나
4	3점	· 종교, 생활모습 인종의 3측면에서 서술했다. (3점)
		· 두 가지 측면에서만 서술했다. (2점)
		· 한 가지 측면에서만 서술했다. (1점)
5	2점	· 유럽인들이 라틴 아메리카를 정복하는 과정에서 여성인 원주민들과 아프리카들의 혼혈이 생겨났다. (1점)
6	2점	③ 브라질에 분포하는 혼혈 인구의 대부분 메스티소이다.
7	2점	② B
8	2점	· 개발을 찬성하는 입장: A, C (1점)
		· 개발을 반대하는 입장: B, D (1점)
		· 두 입장의 핵심 내용을 바르게 썼다. (1점)
9	2점	· 아마존 개발을 찬성한다. (1점)
		· 아마존 개발에 따라 빈곤한 농민들에게 토지가 생긴다. (1점)
10	2점	· 브라질 농부의 의견을 반대한다.(아마존개발을 반대한다.) (1점)
		· 아마존 개발은 전 지구적인 환경 문제(지구온난화)를 야기한다. (1점)
11	4점	· 우리나라의 종교에 대한 언급을 하였다. (1점)
		· 우리나라의 인종(혼혈이 거의 없는 몽골인종)에 대한 언급을 하였다. (1점)
		· 우리나라의 음식에 대한 언급을 하였다. (1점)
		· 편지글의 형식이다. (1점)
총점	30점	

